

RISS & KOCW 

우수활용



사례집

about RISS & KOCW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Index

About RISS & KOCW

- ★ RISS 소개 및 연혁 06
- ★ KOCW 소개 및 연혁 07

RISS 활용사례

- ★ 대 상 : 생애 첫 연구는 RISS와 함께!! (인천교육청 영어영재원, 박성한) 10
- ★ 최우수상 : Riss On, Research On: Riss와 함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성균관대학교, 유민정) 14
- ★ 최우수상 : 8년의 성장을 RISS와 함께하다. (㈜피움이노베이션, 심현숙) 19
- ★ 우 수 상 : 신분만 '대학생'인 나의 현실을 제대로 알려준 RISS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박준우) 22
- ★ 우 수 상 : 출산 및 육아 과정 속에서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경북초등학교, 성승희) 24
- ★ 우 수 상 : 'RISS' 활용으로 쉽고 똑똑해진 학술지 발간업무 (국립문화재연구소, 황경순) 27
- ★ 행 운 상 : RISS! 꿈을 펼치는 가장 쉬운 단축키! (경성대학교, 백민정) 30
- ★ 행 운 상 : RISS로 한 단계 거듭나기 (단국대학교, 박금주) 33
- ★ 행 운 상 : 논문검색의 끝판왕 RISS !!! (창인학교, 민봉기) 36
- ★ 행 운 상 : 13년 지기, 내 인생의 든든한 교육 동반자 (서울대학교, 홍은주) 38
- ★ 행 운 상 : RISS와 자기주도 학습 (상명대학교, 이귀현) 40

RISS & KOCW 우수활용사례집

KOCW 활용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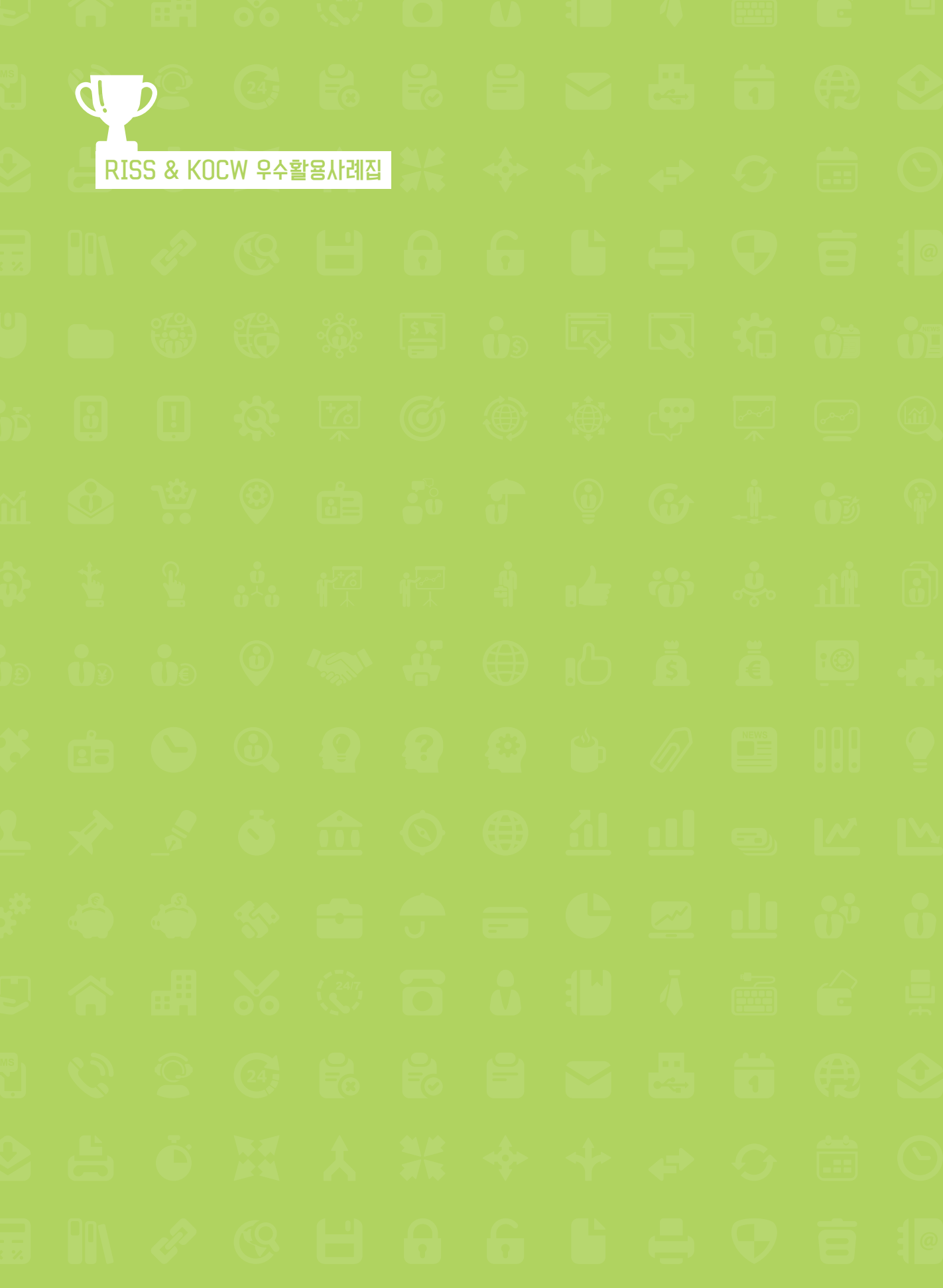
- ★ 대 상 : 일류 엔지니어의 꿈, KOCW로 날개를 달다 (현대다이모스, 박찬호) 44
- ★ 최우수상 : 우리 꿈의 든든한 지원군, KOCW! (휘문고등학교, 이강희) 47
- ★ 최우수상 : 목표를 생각하고 고민하면 “모두를 위한 해결방법”이 떠오른다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 김성준) 50
- ★ 우 수 상 : 방향에서 벗어난 새로운 도전, 대학 강의 따라잡기 (이화여자대학교, 심소은) 54
- ★ 우 수 상 :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곁을 함께하는 동행자, KOCW (제주대학교, 강현주) 58
- ★ 우 수 상 : 새로운 지식을 넘어서게 하는 나의 조력자, KOCW (중국 화동사범대학교, 진윤주) 61
- ★ 행 운 상 : KOCW, 가난한 공대생의 엔진이 되어주다 (경희대학교, 류한철) 63
- ★ 행 운 상 : KOCW로 1등했습니다! (중앙대학교, 김태영) 66
- ★ 행 운 상 : KOCW를 활용한 대학원 스터디 모임의 학습능력 향상 사례 (경북대학교, 황성윤) 69
- ★ 행 운 상 : 나의 꿈에 날개를 달아준 KOCW (경기도교육청, 장지수) 72
- ★ 행 운 상 : 나의 선배교수, 동료교수, 그리고 멘토교수 (호남대학교, 이문영) 74

KOCWC 활용사례

- ★ 조각으로 분리된 지식으로 직물 짜기 (영진전문대학교, 정혜인) 78
- ★ 우연히 보게 된 강의 (영진전문대학교, 구상모) 80



RISS & KOCW 우수활용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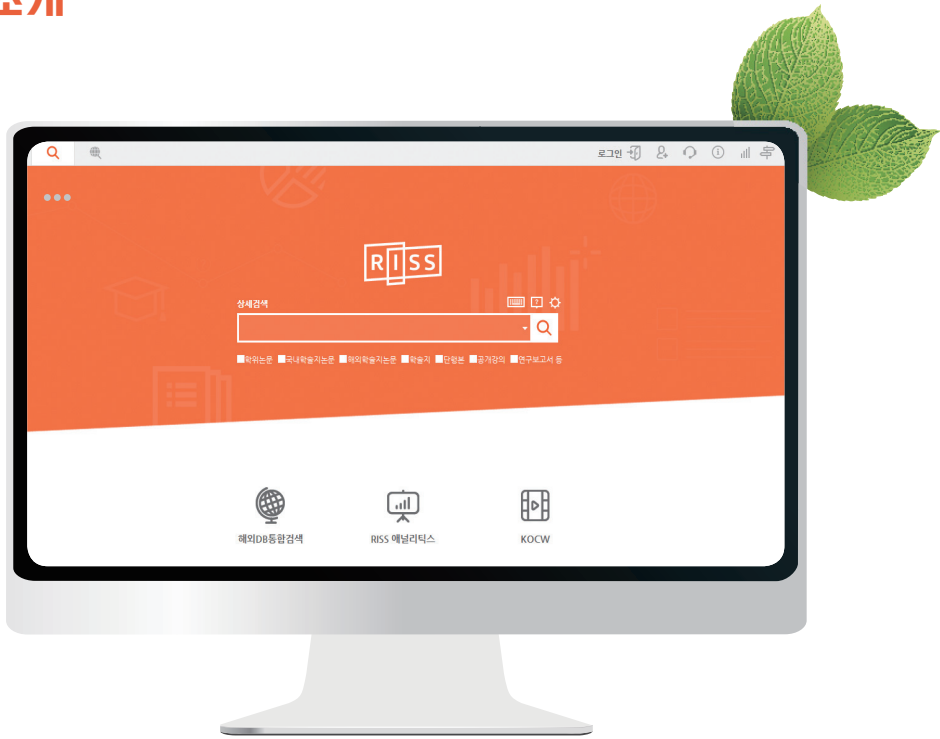


RISS & KOCW 우수활용사례집

—
About
RISS & KOCW
—

- ★ RISS 소개
- ★ KOCW 소개

RISS 소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는 전국 대학이 생산하고 보유하며 구축하는 학술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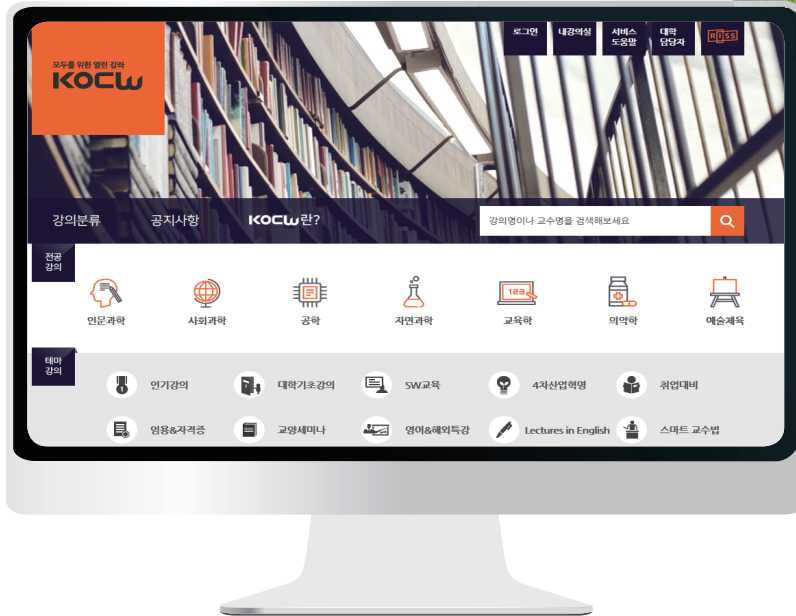
Web

Facebook

RISS 연혁

2018	2018년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수상 2018 한국 Digital Government ASOCIO Awards 수상
2012~2017	해외DB통합검색서비스 오픈('13) 〈제10회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소셜미디어대상 준정부기관부문대상 수상('17)
2007~2011	RISS 이용자 100만 돌파('07) 이용자 참여형 RISS 2.0 서비스 개통('09) RISS 모바일 웹서비스(m.riss.kr) 오픈('11)
2002~2006	전국 4년제 대학 100% 공동활용체제(종합목록 가입)('03) ISO 9001:2000 국제품질경영시스템(QMS)인증 획득('05) 해외 대학용 RISS International 서비스 시작('06)
1999~2001	국가학술연구 DB구축(학술지논문/학위논문 원문 구축) 시작('00) “교육학술종합정보센터” 지정('01)
1998	학술연구정보 RISS 서비스 개통

KOCW 소개



대학강의공개서비스 KOCW(Korea Open CourseWare)는
국내대학 및 해외 고등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공개 강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Web

<http://www.kocw.net>

Facebook

<http://facebook.com/kocw.net>

KOCW 연혁

2018	강의클립(분절)기능 서비스 제공, 네이버 검색 키워드 연계를 「온라인 공개 강좌」 강의정보 제공 KOCW 국내강의영상 17,287건, 강의자료 25만 여건 달성('18년 10월 말 기준)
2017	KOCW 홈페이지 일원화 및 웹서비스 개편 영국 Teacher's TV 해외강의 메타데이터 연계서비스 실시(총 3,800여개) RISS-KOCW 논문/강의 연계 큐레이션 테마서비스 개시 해외 이용자를 위한 영문페이지 Lectures in English 테마서비스 개시
2015~2016	코세라(coursera.org) 제공 강좌 메타데이터 연계 서비스 실시('15) 〈휴먼테크놀로지〉 사회공공부문 우수상 수상('16) 대학별 공개강의 담당자 웹페이지 개발('16)
2012~2014	국내 석학 및 명사 특강 서비스 확대('12), 전문대학을 위한 KOCWC 서비스 오픈('14)
2010	KOCW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시작, KOCW 어플리케이션 〈WEB AWARD〉 최우수상 수상 대학정보공시 〈대학 강의공개〉 지표 포함
2009	대학공개강의 KOCW 서비스 오픈, GLOBE 가입 및 해외OCW 콘텐츠 연계
2007	KOCW 시범 서비스 오픈



RISS & KOCW 우수활용사례집

RISS를 활용한
2018년도의 우수 사례
11작품을 소개합니다.

RISS & KOCW 우수활용사례집

About RISS

- ★ 대 상 : 생애 첫 연구는 RISS와 함께!! (인천교육청 영어영재원, 박성한)
- ★ 최우수상 : Riss On, Research On: Riss와 함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성균관대학교, 유민정)
- ★ 최우수상 : 8년의 성장을 RISS와 함께하다. (주피어미노베이션, 심현숙)
- ★ 우수상 : 신분만 '대학생'인 나의 현실을 제대로 알려준 RISS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박준우)
- ★ 우수상 : 출산 및 육아 과정 속에서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경북초등학교, 성승희)
- ★ 우수상 : 'RISS' 활용으로 쉽고 똑똑해진 학술지 발간업무 (국립문화재연구소, 황경순)
- ★ 행운상 : RISS! 꿈을 펼치는 가장 쉬운 단축키! (경성대학교, 백민정)
- ★ 행운상 : RISS로 한 단계 거듭나기 (단국대학교, 박금주)
- ★ 행운상 : 논문검색의 끝판왕 RISS !!! (창인학교, 민봉기)
- ★ 행운상 : 13년 지기, 내 인생의 든든한 교육 동반자 (서울대학교, 홍은주)
- ★ 행운상 : RISS와 자기주도 학습 (상명대학교, 이귀현)



생애 첫 연구는 RISS와 함께!!

인천 영어 영재원(IEGEC)에서는 영어 영재학생들에게 영어를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애 첫 연구를 하는 중학생들이 연구의 주제를 설정하는 것부터 논문 검색, 인용, 프로포절 작성, 실제 논문 작성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기만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연구의 첫 관문을 RISS와 함께 시작한 학생들이 어렵지만 즐겁게 연구의 첫 걸음을 시작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인천 영어영재원은?

인천지역 중학생 중 영어에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영어영재들에게 적절한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2. 무엇을 배우는가?

영어영재원에서는 영어를 도구로 장차 미래의 연구자가 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R&E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R&E 지도의 어려움

중학생들에게 논문지도, 그것도 영어로 논문지도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관심분야에 대한 주제를 탐색하고 관련 주제를 공부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를 학술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것은 참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 Flipped Learning 기반의 RISS 활용법 교육

중학생들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논문은 어떤 것이고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를 교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RISS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자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다만 RISS 사이트에는 중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된 콘텐츠가 없었습니다. 주황색 화면을 보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이들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인천 각지에서 격주 간 모이는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Flipped Learning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직접 Google Site를 개설하고 RISS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그 후 본 차시 수업에서 RISS활용의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1) 주제탐색은 RISS Analytics

학생들이 논문을 작성할 때 주제를 선정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했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RISS Analytics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주제별로 활용통계 분석이 된 자료를 통해 중학생들은 현재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가 진행 중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김OO 학생의 경우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문의 주제를 선정해야 하는지, 문헌연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RISS Analytics의 “주제별 활용통계 분석”에서 “교육학” 탭을 클릭하고 “학위논문”을 살펴본 결과, 현재 학계에서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것이 “flipped learning”, “PBL 기반 활동” 등이 주요한 흐름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김OO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flipped learning을 시행하고 있는 선생님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OO 학생은 flipped learning을 시행하면 숙제가 더 많아진다고 느꼈기 때문에 “flipped learning이 중학생 학습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주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RISS Analytics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면서 학교선생님의 수업방식 및 자신의 느낀 점을 논문의 주제로 선정한 재미있는 경우였습니다.

2) 선행 연구 분석은 RISS SAM!!

학생들이 대략의 논문의 주제를 선정하고 나면 이제 관련된 논문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막막하게 어디서 무엇을 검색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SAM을 활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연구동향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각자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된 연도별 논문의 활용도를 분석하여 선별적으로 선행연구들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연구자 간의 관계도를 보면서 자신도 언젠가는 저 사람들과 사이의 한 구성원이 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자체가 학생의 진로지도가 된 셈입니다. RISS를 통한 교육은 이처럼 학생들이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향한 문을 열어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3) 참고문헌 정리하기

학생들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논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학업량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진득하게 앉아서 논문만 읽고 정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서재 담기”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서재에는 자신들만의 책장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나중에 활용하기 쉽게 하기 위한 범주화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즉 내서재에 담고 나서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엑셀” - 참고문헌양식 “APA” 스타일로 내보내도록 하니 다시 논문을 찾아야 하거나 참고문헌을 작성하기 위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추후 논문을 작성할 때의 수고를 많이 덜어주었습니다.



5. RISS를 활용해 선정한 논문 주제모음

학생들은 여전히 처음 연구라는 것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체계적인 RISS 활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논문의 주제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연번	제목
1	The Correlation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Violence
2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Depression According to Parenting Attitude
3	Text Analysis for the Social Impact of Facebook Celebrities

6. RISS 활용 논문지도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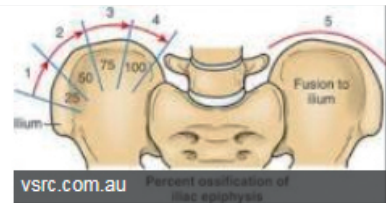
“RISS로 논문 주제 드디어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 RISSer 맞죠?”

2주 만에 만난 A양이 한 말입니다. 논문 주제는 알겠는데 RISSer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천천히 설명을 해보라는 말에, 아이는 이제 RISS를 잘 활용하니 RISS+ER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싱거운 이야기였지만 Risser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수업 중 학생들과 같이 찾아보니 Risser Sign은 성장판이라는 재미있는 영어 단어 뜻이 있었습니다.

The **Risser sign** is an indirect measure of skeletal maturity, whereby the degree of ossification of the iliac apophysis by x-ray evaluation is used to judge overall skeletal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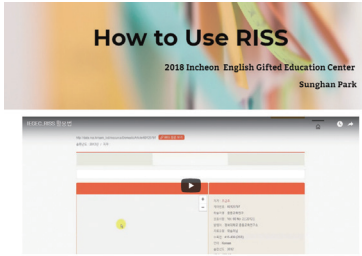
[Risser sign - Wikipedia](https://en.wikipedia.org/wiki/Risser_sign)

https://en.wikipedia.org/wiki/Risser_sign



꿈보다 해몽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Risser를 활용하는 정도는 곧 연구자들의 성장의 척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영재원의 학생들은 매일 몸의 성장판이 자라듯, Riss를 통해 연구의 성장판도 함께 자라는 귀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 활동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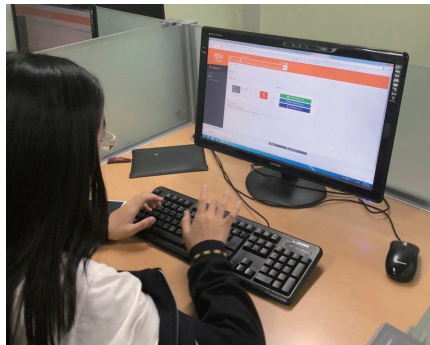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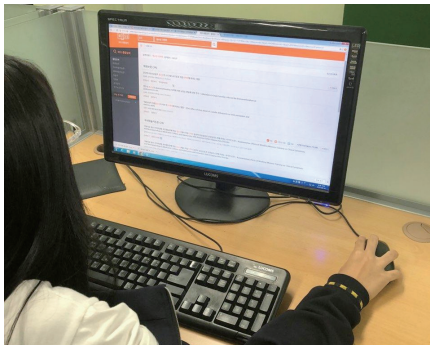
Google Site를 활용하여 RISS의 활용법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PC/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하이퍼링크 적용

(<https://sites.google.com/view/time-to-be-a-researcher/홈>)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PPT 슬라이드를 제작하여 step by step 따라서 연구주제설정 및 선행연구탐색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함

Youtube에 실제 RISS 활용하는 방법을 업로드 하여, 학생들이 미리 학습하고 올 수 있도록 Flipped Learning의 형태로 제시하였으며, 수업에서는 관련된 과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수업을 진행함



▶ 컴퓨터실에서 RISS를 활용하여 논문주제 탐색 등을 실시하는 모습



▶ 논문 최종 결과물 발표대회의 모습



Riss On, Research On :

Riss와 함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한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논어」나 「맹자」를 읽고 조선시대 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서 대학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박사에 들어와서는 관심사가 조금 다변화하여, 전근대시기 한국 학자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학자들의 유교경전 해석과 그 의미를 고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논어」를 보면 “與人恭而有禮，四海之內，皆兄弟也.”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공손하고 예의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형제이다.”라는 의미인데, 이 글귀를 저의 RISS경험담에 적용해보면 “與RISS, 四海之書, 皆我的也.”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iss와 함께라면 전 세계 모든 자료가 나의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무료**로 말입니다.

저는 석사논문 막바지에 RISS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매력에 매료되어 박사과정에 들어온 이후부터 RISS를 더욱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RISS를 적절히 활용한 덕분에 저의 연구계획서가 한국연구재단에 뽑히기도 했고 KCI 단위논문 1편과 A&HCI 단위논문 1편을 게재하며 현재 박사논문 본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리스경험담을 “Riss를 통해 전국을 내 손안에/RISS와 함께 탄탄대로/RISS를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라는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1. RISS를 통해 전국을 내 손안에: 원문 “무료” 복사 기능으로, 신세계를 열다.



[그림 1] 심슨 만화

“난 30살이야. 작년에 60만원 벌었다~” 유명한 심슨 만화에서 주인공 심슨이 대학원생으로 빙의하여 한 말입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은 적게 버는 대학원 생활을 희화화한 것입니다. 미국사회에서 비치는 “대학원생”의 모습이라 생각하니 슬프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RISS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2012년 봄, 석사논문 본심을 준비했을 때입니다. 그 때 RISS에서 가장 놀랍고 반가웠던 기능은 “**문헌복사 서비스**”였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데, 도서관에 오기만 하면 석사논문에 참고해야

할 자료를 복사하기 위해 매일 2만원 가량을 지출했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면서도 당시 도서관에 오는 게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안 그래도 밥 먹을 돈도 부족한 대학원생인데, 복사비로 상당량의 금액을 장기간 지출하려다보니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RISS의 문헌복사서비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림2. 문헌복사서비스’ 참조) 타교에 소장되어 있는 박사논문을 구해야 했는데 단행본은 타교 대출이 가능하지만 석·박사 학위논문은 대출이 안 되었습니다. 한창 시간에 쫓기고 있는 터라 타교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엔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웹페이지 왼쪽 상단에 원문 복사/대출 아이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림 2] 문헌복사서비스

“유레카!” 그리고 복사비와 택배비를 지불한다고 해도, 왕복차비와 시간을 생각하면 이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헌복사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사물이 도착하고 나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헌복사신청”에 드는 모든 비용을 제가 소속 되어있는 도서관에서는 모두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적인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RISS 덕분에 시간도 아끼고 돈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RISS 문헌복사를 이용했을 때	이용하지 않았을 때
복사비	0원	300 × 50 = 15,000원(장당 복사비 50원 기준)
차비	0원	1,200 × 2 = 2,400원
식비	0원	4,500원
소요시간	1분(소속 도서관 대출데스크에서, 신청한 복사물을 가져오기만 하면 됨)	왕복 2시간 + 자료 찾기 40분 + 복사 20분 = 3시간
·RISS를 활용하면 금전적 비용은 21,900배, 시간적 비용은 180배 절약!!!		

[표 1] 타교 박사학위논문(300쪽 분량)을 획득하는 데 드는 금전적·시간적 비용 비교

타교에 소장되어 있는 박사학위논문(300쪽 분량)을 획득하는 데 드는 금전적·시간적 비용을 한 번 표로 비교해봤습니다. 물론 가정의 상황이지만, RISS의 문헌복사를 활용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금전적 비용을 21,900배, 시간적 비용은 180배 절약하게 됩니다. 매일 한 권의 박사학위논문이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총 60만원의 비용과 90시간을 절약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12시간씩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RISS의 문헌복사 기능을 활용하면 한 달에 일주일 이상을 벌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이득인 것입니다.

사실 처음 문헌복사신청을 받고 난 뒤, 한동안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로 무료일까?” “행정상/전산상 오류가 아니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려와 달리 RISS의 문헌복사신청은 횟수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단, 대출 신청은 1인 3권으로 제한) 저에게 신세계가 열린 듯 했습니다. 덕분에 이후부터는 정말 원 없이 자료를 복사해서 이용했습니다. 그동안 냈던 비싼 등록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시기에 석사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 RISS와 함께 탄탄대로: 상세검색을 통해 국내 최고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




박사과정에 들어와서는 경제적 고민 없이 연구에만 몰두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적당한 장학제도를 찾던 와중에 한국연구재단의 “글로벌박사펠로우십(Global PhD Fellowship)”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박사펠로우십, 일명 G.P.F는 인문학계 학생들 사이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장학금으로 꼽힙니다. 서류작성에서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면접까지 전체 일정이 모두 영어로 이뤄지는 만큼 아무나 지원하지도 않고 경쟁률 또한 높습니다.

운이 좋게 서류평가에 통과하고 프리젠테이션과 면접을 준비하면서 RISS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면접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려면 현재까지 국내 학계의 연구동향을 파악해야 했는데 RISS 상세검색에서 관련 키워드를 넣어가며 국내와 국외 학계의 연구동향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1) 국내 연구동향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17~19세기에 살았던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학자들이 「논어」와 「맹자」 등을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살펴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계에서는 이를 ‘경학(經學)’이라고 부릅니다. 제 연구 분야에 대해 이와 같은 설명이 필요한 것처럼 중요한 영역이지만 요즘 현대에 와서는 잘 연구하지 않는 탓에 국내에 연구 성과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이러한 국내 연구동향에 대해 면접관에게 설명해야했는데 저는 두루뭉술한 서술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 더 설득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RISS 상세검색을 통해서 최근 연구동향을 살피고 이를 수치화하여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 상세히 묘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논어/맹자/대학/중용을 상세검색창에 입력” → 어떤 연구자 해당분야를 연구하며 어떤 경전을 더 많이 연구했는지 / 어느 시대를, 어떤 조선시대 학자를 더 많이 연구했는지 알 수 있음.
	(2) “1번을 통해 색출된 연구자 이름을 상세검색창에 다시 입력” → 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음. 연구의 전문성을 측정하는 데 주요한 척도가 됨.
	(3) “상세검색창에 시기를 설정” → 어느 년도에 연구 성과가 많았는지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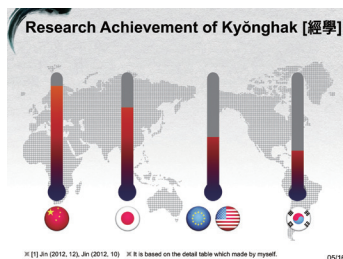
[표 2] RISS 상세검색을 통한 국내연구동향 파악

[표2]와 같이 RISS 상세검색을 거치며 저는 당시 국내 연구동향은 1990년대에 비해 다소 증가했지만 사서삼경 중에서 「논어」에 집중되었으며, 한 명의 학자가 꾸준히 한 분야에 대해 연구 성과물을 내놓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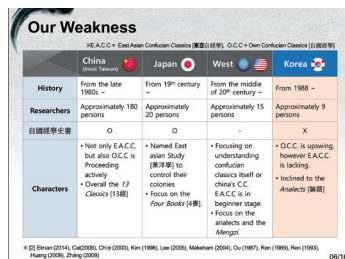
(2) 국내·외 연구동향 비교를 통해 연구의 필요성 주장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나라의 세금을 왜 경학 연구에 투자해야 하는지 설득해야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연구의 필요성이 피부에 와닿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해외 연구동향을 분석하였고, 이 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데 있어 RISS를 활용했습니다.

RISS를 통해 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과정은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과정과 유사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확실히 영미권과 중국에서의 연구량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RISS 상세검색을 통해 얻어진 해외 연구동향과 국내 연구동향을 도표로 비교하고 한국연구재단의 글로벌박사펠로우십 면접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슬라이드의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4] 국내외 연구에 대한 양적 비교



[그림 5] 국내외 연구에 대한 질적 비교

[그림 4]와 [그림 5]는 국내·외 경학 연구동향에 대한 양적, 질적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슬라이드를 통해 저는 면접에서 (1) 다른 나라는 연구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족한 실정이며 (2) 우리나라 연구는 「논어」에 치중되어 있고 (3) 한 분야를 꾸준히 연구한 연구자가 부족하며 (4) 우리나라 경학의 역사를 서술한 책이 없다는 단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맹자」를 연구할 것이고,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학자들의 「맹자」해석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맹자」학사를 서술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면접관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는지, 그 해 저는 “17~19세기 한중일 지식인들의 「맹자」 해석과 사유의 전환”이라는 연구제목으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RISS를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타 기관 문헌대출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의 연구자료 내 품안에

제 연구 분야의 특성이 있다면, ① 희귀한 연구 자료가 많고 ②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연구 자료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성균관대는 국외 자료가 적고 또 절판된 책의 경우에는 구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RISS의 타 기관 “도서대출 서비스”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RISS에서는 타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를



검색할 수 있을뿐더러 타 기관 자료를 소속기관으로 배달하여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 기관 도서대출 서비스입니다.



[그림 6] RISS의 도서대출 신청 서비스

타 기관 도서대출 서비스는 맨 처음에 설명한 타 기관 문헌복사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무료(소속대학원에서 비용지불)입니다. 다양한 언어로 쓰여진 전 세계의 연구 성과물을 소속기관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덕분에 저는 큰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17~19세기 한중일 지식인들의 「맹자」 해석”을 비교 연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얼마 전 KCI와 A&HCI에 각각 한 건의 논문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Research On, RISS On

논문을 쓰는 일은 크게 “자료를 분석하고 쓰는 작업”과 “자료를 검색하고 확보하는 작업”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ISS 활용의 장점을 종합하여 말하라면, 후자의 작업을 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연구자가 자료를 분석하고 쓰는 작업에 보다 몰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RISS와 같은 전문성 있는 웹사이트가 없었다면 저는 “석사졸업 → 글로벌박사펠로우십 수혜자로 선정 → KCI 논문게재 → A&HCI 논문게재”와 같은 실적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이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RISS를 처음 사용했을 때는 로그인을 하는 게 참으로 귀찮았습니다. 이미 소속대학 도서관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RISS에 또 로그인을 해야 하는 과정(복사/대출, 내서재, E-DDS를 이용 시 RISS 로그인 필요*)이 번거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로그인을 하면 얻는 것이 많고 RISS는 항상 사용하게 되니, 이제는 소속대학 도서관 홈페이지는 켜지도 않은 채 그냥 처음부터 RISS에 우선 로그인을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박사 본심을 준비하는 오늘도 RISS는 항상 On(접속상태)입니다.

* 보통의 경우, 대학도서관을 통하여 RISS를 접속하는 것(직접접속)은 대학도서관에서 구독하는 국내학술지논문을 무료로 이용(기관내 무료)하기 위함임.



8년의 성장을 RISS와 함께하다.

늦깎이 대학원생, 논문의 보물창고 RISS를 만나다 _ 활용 동기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부족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다. 42살의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였기에 이런저런 걱정도 많았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더 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개강 둘째 주부터 쏟아져 나오는 과제는 직장 퇴근 후 수업을 마치고 돌아와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역량의 한계를 넘어섰다. 밤새 논문을 찾고 뒤지고 자료를 검색하고... 데이터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대학원 도서관 사이트를 통해 RISS를 알게 되었고 그 후 역량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신세계가 열렸다.

RISS는 그야말로 논문의 보물창고였다. 대학원에 들어가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해준 것이 바로 RISS와의 만남이었다. 소기업에 다니며 국가R&D 참여기업 책임연구원으로서 자료조사에 항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때로는 공동연구기관인 출연연이나 공동연구 대학의 연구원들에게 부탁하여 관련 논문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RISS를 만나고 부터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 필요한 자료를 더 많이 더 빠르게 그것도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RISS의 활용도를 확장하다 _ 활용목적/ 방법의 구체성

학업 활용 : 석·박사 코스웍 기간인 4년 동안은 거의 매일 RISS에 들어와 자료를 검색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과제를 하려면 수업이 끝난 당일 밤부터 새벽까지 그 과목의 자료를 찾아 정리해야 했고 주말에는 과목마다 <과제보고서>를 일괄적으로 작성해야 했다. 학교 도서관 사이트에서 대표검색으로 자료를 찾지 않고 바로 RISS로 들어왔다. 학교도서관 사이트보다 RISS에 더 많은 논문자료가 있었고, 검색방법도 체계적이고 다운로드도 무료로 바로바로 가능해 자료관리가 쉬웠기 때문이다. 논문제목의 일부만 알거나 관련 키워드만 입력해도 수십 건의 논문이 줄줄이 검색되었다. 논문을 읽다가 레퍼런스에서 알게 된 저자의 다른 논문을 찾고 싶을 때에도 RISS를 통하면 더 많은 자료검색이 가능했다. 학술정보 데이터는 RISS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저기 찾아볼 것도 없이 여기서 찾아서 자료만 정리해도 충분할 만큼 없는 자료가 없었다. 덕분에 우수한 성적으로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었고, 올 A+의 성적으로 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업무 활용 : RISS는 학업에서 뿐만 아니라 업무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대학원에 들어와 RISS를 접할 당시 나는



중소기업에서 CTO로 재직하며 국가R&D 3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 연구원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국책과제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은 일이다. 특히 공동연구기관인 출연연이나 대학의 연구원들도 모두 저마다 업무가 많고 바쁘다보니 실질적인 <실적보고서> 작성 시점이나 다음 년도 <연구계획 보고서> 제출 시기가 되면 개발 제품에 관한 내용은 거의 참여기업에서 작성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막상 자료를 검색할 연구 인원도 부족한 데다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특허정보나 기술가치평가 등을 외부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는 고급 정보나 자료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특히 최근 들어 정보와 자료에 대한 보완이 강화되고부터는 공개가 가능한 시장정보까지도 막혀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때로는 자료를 검색해서 찾고 나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다시 검색해봐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RISS를 활용하고부터 이런 고민들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자료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는 그야말로 보물이다.

전문자료 활용 : 국가R&D 참여기업 책임연구원의 중요 업무 중 하나는 실적평가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제품 자체의 개발 못지않게 <특허등록>과 <논문 게재> 등의 연구 성과가 중요하다. 이 업무에서도 RISS는 정말 힘이 되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었다. 개발 기술과 관련된 키워드 중심으로 논문을 검색해 기술개발 자료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특허출원명세서를 작성할 때 관련 기술 검색방법으로도 활용하였다. 시장조사 자료로 활용한 것이다. RISS는 정말 많은 업무에 활용이 가능했다.

RISS를 통해 전문적인 기술개발에 관련된 논문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업무에도 도전하게 되었다. 국내 최초 최고 기술에 수여되는 인증인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인증과 NEP(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인증이 그것이다. 고급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대량의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주로 도전하는 인증이다. 인증기업의 제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품목이 되는 기회를 갖게 되는 만큼 혜택도 큰 인증이다. 기술과 제품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RISS를 만나 시장조사와 자료검색에 자신감이 생기는 겁도 없이 이 두 인증에 도전하게 되었다. 혜택이 큰 만큼 주장하는 모든 기술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근거가 반드시 필요했으며, 특히나 논문만 근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우리 회사 기술에 관련된 최근 논문은 모조리 검색하고 관련된 저자들의 기술 논문뿐만 아니라 이론적 근거까지도 모두 다운받아 DB화하여 자료화하였다. 그리고 2012년 NET 인증을 받은 후 6년만인 올해 NEP 신제품인증을 받게 되었다. 최종심사단계에서 심사위원장께서 '본 기술이 해외 유명학술지에 게재된 것은 국내 기술이 최초 기술로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총평해 주셨다. RISS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표 1]은 개인적 업무적으로 RISS를 활용한 내용과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구분	RISS 활용내용	활용효과
학업관리	과제 / 보고서 작성 논문검색	석·박사 졸업
업무관리	국토부 R&D 시장조사/ 계획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작성 자료검색	국책과제 3건 성공수행
	특허명세서 작성 자료검색	특허 2건 등록
전문자료관리	개발 제품 기술메커니즘 관련 논문검색	국내·외 논문 5편 게재
	핵심 기술 관련 논문검색, DB화	NET / NEP 인증획득

[표 1] RISS 활용내용과 효과

RISS에 이름을 올린다 _ 활용성취

대학원에 입학한지 7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오늘도 해외 학술지에 제출할 논문 초안을 마무리하며, RISS에서 레퍼런스 관련 논문을 검색하며 확인했다. RISS를 만나 대학원 석·박사 과정 내내 자신 있게 과제를 하고 논문을 쓸 수 있었으며 업무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한 모든 과정이 집약되어 [표 2]와 같이 해외 학술지와 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나의 이름도 RISS에 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오랜 기간 힘들게 공부해오던 박사과정을 마무리하며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인생의 가장 큰 성취를 RISS 덕분에 이루었다.

년도	논문제목	게재지
2012	A Study on R&D Process for an Eco Friendly Inorganic Paint	Advanced Materials Research (AMR)
2012	R&D프로젝트 리스크관리의 기술적 요인과 비기술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프로젝트경영학회지
2013	무기질도료의 흡착·흡방습 성능향상 기술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환경학회지
2017	Study of construction convergence technology for performance improvement in functional building materials	Journal of Building Engineering
2017	기능성 건축자재 산업의 기술경영모델 연구: 기능성 무기질도료 사례연구	한국생활환경학회지

[표 2] RISS 활용성취 결과

RISS와 함께한 성장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7년간 대학원에 재학하며 국토교통부 R&D 3건을 성공과제로 수행하였으며, 지식경제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부로부터 3번의 장관표창을 받았다. 이 모든 업무의 진행에 RISS가 항상 함께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올해 동종업계 최초의 최고 기술 제품에 대한 인증인 국가NEP인증까지 받았다. 나는 감히 지난 7년의 모든 학위과정, 국가 R&D 보고서와 자료작성에 그리고 몸담고 있는 기업의 인증과 특허업무 등의 모든 진행을 RISS와 함께 했다고 자신한다. 이름 없는 작은 중소기업의

부사장이 내세울 것 없는 작은 일들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에서 자료조사의 어려움이 정말 크고 그 벽이 높았기에 그 고마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으며, RISS를 활용하면서 이루어 온 모든 성과에 대해 RISS측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글을 쓴다. 나아가 RISS가 정보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더 많이 공개되고 활용되어 기술력을 키우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감사합니다.



신분만 '대학생'인 나의 현실을 제대로 알려준 RISS

영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나에게 RISS는 여러 가지 깨달음을 준 매체였다. 늘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라는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그저 수업에 출석하고, 적당히 과제를 제출하고 적당히 시험공부를 해서 적당히 학점을 받아 졸업을 목표로 하는 양산형 대학생이 되고 있는 중이었다. RISS에 접속하기 전까지는.

RISS에 접속하게 된 계기 또한 위에서 말한 안일한 마음가짐에서 비롯되었다. 4학년이 되면 졸업논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포털 사이트에 '논문쓰기싫다.'를 검색했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어떤 사람의 푸념과도 같은 글에 'RISS에서 그냥 다 가져올까?'라는 글이 있었다. 나 또한 논문뿐만 아니라 여러 과제나 리포트 제출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곳을 찾고 있었던 중 RISS를 활용해보면 되겠다 싶어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것이 RISS와의 첫 만남이다.

필자는 RISS를 탐색하면서 정확히 세 번 놀랐다. 지금부터 그 놀란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접근성'이다. 키워드 검색기법을 통해 원하는 주제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찾고자 하는 자료가 어떤 유형의 자료인지 총 7가지(학위논문, 국내학술지논문, 해외학술지논문, 학술지, 단행본, 공개강의, 연구보고서 등)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었다. 또한 다국어 검색기능이 존재하여 키보드로 입력하기 어려운 언어들의 입력이 용이하며 가장 중요한 논문의 연도별 검색 기능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논문 또한 시대상을 반영하기 마련인데 이 연도별 검색기능을 통해 과거의 연구 논문과 현재의 논문을 동시에 비교할 수도 있었다. 이 과정들이 어렵지도 않았고, 복잡하지도 않았으며 RISS Analytics를 통해 연도별로 활용통계까지 알아볼 수 있었고 해외 DB 검색을 통해 타국의 자료들까지 읽어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자료의 양'이다. 현재 RISS는 가입자만 300만 명이 넘고 활용체제를 구축하는 교수진과 연구원만 20만 명 가까이 되며 국내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을 합쳐서 670만건 이상의 자료가 존재한다고 하니 가히 대한민국 최대의 학술정보사이트라 불릴만하다. 평소 논문이라고 하면 매우 어렵고 전문적이며 알아듣지도 못할 용어들이 난무하는, 박사들만 읽는 글이라고 생각하여 찾아보고 참고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RISS는 더더욱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이트였다. 그래서 게임 이름과 가수 이름과 같은 논문과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단어들을 검색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검색된 자료를 마주한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아니 이런 주제도 논문 자료가 있다고? 여긴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나는 정신없이 자료들을 읽어보고 다시 검색하고 찾아보기를 3시간가량 반복했다. 아무 단어나 검색해도 논문 자료를 찾을 수 있었고, 나는 점점 나의 전공과 관련된 자료들을 검색하고 읽어보기 시작했다. 당연히 어려웠고 몇 번을 읽어봐도 이해할 수 없던 항목들이 다수 존재했으나 오히려 나의 학구열과 승부욕을 자극하여 더 열심히 찾아보고 읽어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는 ‘나의 수준’에 놀랐다. 저명한 교수 분들이나 연구원 분들의 논문은 당연히 전문성 있고 어려우며 하루아침에 완성된 내공이 아니기에 논문 또한 쉽게 읽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렇다면 나와 비슷한 또래 학생들의 논문은 어떨까? 여러 대학교 학생들이 작성한 연구 논문이나 졸업 논문을 10편 가량 찾아서 읽어보았다. 논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이 진정 학생이 쓴 것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대단히 정교하고 전문적이며 훌륭하고 저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느껴질 정도의 수준들이었다. 물론 지도교수들의 도움과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수 십 번 있었겠지만 나와 비슷한 또래 친구들은 몇 년을 공부한 것을 활용하여 논문을 쓰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내 자신이 초라해졌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무엇이든 적당히만 해내고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는 나의 수준을 돌아보니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다. 논문을 작성한 다른 학교 학생들은 매 순간 진정성 있고 성실하게 학문을 탐구하지만 나는 겨우 이런 수준에 안주하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내가 한심했고 자괴감이 들었다. 왜 진작 RISS를 찾아보지 않았는지, 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적당히 라는 바보 같은 기준을 스스로 부여했는지 생각해보았다. 그저 학점만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장학금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는 현 상황에 만족하며 대학생이고 성인이라는 이유로 자유라는 단어로 스스로를 포장하여 적당히 공부하고 놀기를 바라는 신분만 대학생인 내가 끝도 없는 학문의 세계에 발을 들였으니 이러한 감정을 느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바탕 신세계를 경험하고 여러 감정들을 느끼고 거기서 끝난다면, 난 그저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머무를 것이라는 생각에 갑자기 두려웠다. 이미 늦은 것은 아닐지, 남들이 볼 땐 뛰어봤자 벼룩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싶었다. 마침 시험 기간이었기에 RISS를 활용하여 한 번쯤은 공부로 밤을 새보자는 생각을 했다. 수강하던 과목 중 ‘메타인지적 언어학습’이라는 주제가 존재했는데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과목이었다. 이와 관련된 논문이나 학술지를 찾아보니 수 천 개의 자료들이 존재했고, RISS의 ‘내보내기’ 기능을 통하여 논문 목록을 소장하고 수시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하며 RISS에서 참고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시험을 본 후 100점 만점에 상당히 99점을 받아 1등을 차지하게 되었다. 모자란 1점도 시험 점수가 아닌 출석 점수에서 제한 점수였으니 사실상 시험 점수는 100점이나 다름없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공부로 인한 성취감, 그 과정 속에서 불타올랐던 승부욕들은 평생 잊을 수 없고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들이었다.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했던 나에게 RISS는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 알려준 선생님이자 더 나아가 다각도적이고 복합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 삶의 개척자이다. 이 날 이후로 필자는 월 평균 약 50회 정도 사이트에 접속하며 틈틈이 자료들을 검색하고 읽어본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나는 부족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다만, RISS가 제대로 알려준 것은 아직 멀었지만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공부할 수 있으며 미래에 언젠가 나도 논문의 저자가 되어 RISS에 당당히 내 이름 세 글자를 올릴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가슴 속에 간직할 수 있게 해준 그런 곳이다.



출산 및 육아 과정 속에서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2012년 8월 박사공부를 시작한 저는, 2016년에 박사 수료를 마친 후 논문 작성을 앞두고 있던 중 둘째 아이 출산으로 잠시 공부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첫째 아이 혼자 키울 때에는 가끔씩 세미나도 나가고 도서관도 들러 연구 동향도 살펴보면서 논문 주제를 탐색할 수 있었지만 두 어린아이를 돌보면서부터는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도 사그라들었습니다. 박사공부를 수료로 그만 두어야 할까도 생각해보았지만 그 동안 공부해 온 과정들과 처음 어떻게라도 현장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꿈을 잃게 된다는 것은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을 찾던 중, 학부 때 교수님의 추천으로 가입하여 과제 해결에 참고했던 RISS사이트가 떠올랐습니다. 14년 전, 당시에 교수님께서 교육관련 연구물들을 유형별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가 있다며 소개해 주셨습니다. 교육의 최근 연구 동향을 정리하기에도 좋으니 전공생들은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고 추천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석사과정을 공부할 때에도 공부하면서 연구물을 수집하고 탐색할 때 자주 사용하였으나 취업하고 결혼을 하면서 한 동안 정보를 활용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었지요. 그러던 중 RISS를 활용하여 연구물들을 먼저 탐색해보기로 결심했고, 박사과정 중 관심을 두고 있었던 ‘교육과정 연계’ 키워드로 텍스트를 읽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고려대 도서관에 로그인하여 교외접속을 이용하면 다운로드 범위나 무료로 볼 수 있는 연구물들이 보다 많았기 때문에 RISS사이트 개별 로그인 방법보다 교외접속을 자주 활용하였습니다. RISS사이트 교외접속 위치는 대개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있는데 고려대인 저희 학교는 옆에 그림과 같이 오른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졸업한 현재는 일반인으로서 이용하려고 보니 네이버 등의 소셜 아이디로도 손쉽게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로그인을 마친 후에는 통합 검색에서 원하는 키워드인 '교육과정 연계' 를 검색하였고 다소 압축되어 명료하게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학술지 논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RISS에서는 연구물의 제목을 눌러보면 간단한 정보가 제공되는데 그 중 상단에 있는 '내서재담기'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구물들을 모아두고 볼 수 있어 추후 선행연구 분석을 할 때 활용하였습니다. 아래는 실제 논문에 작성된 내용입니다.

개성별 편제학교 단계별 커리큘럼 연계 프로그램 학업하는 단계가 분별하게 진행 중이며 이에 관한 학부보 연수나 교사 연구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이후 RISS에서 '유·초등학교 연계'로 검색된 학술지 논문을 조사한 결과, 유·초등학교 연계 교육과 관련한 연구물은 교육내용의 연계성 분석, 교원들의 인식과 운영에 관한 조사, 기타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교육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한 연구(박향숙, 2013; 이지현 외, 2012; 허난-문혜련, 2013; 최민수·신현미, 2012; 최범규, 2013; 이승미, 2010)들은

또한 제가 쓰고자 했던 연구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어 참고할만한 논문이나 학술지 내용은 원문 보기를 통하여 아이가 자거나 업어주는 동안 틈틈이 컴퓨터 화면을 보거나 이를 출력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학위논문은 내보내기를 통해 컴퓨터 바탕화면 상에 목록을 엑셀 형태로 출력할 수 있어 추후 논문의 참고 문헌을 작성하거나, 논문 본문 중 참고 문헌을 넣을 때 번거로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문보기를 다운로드 하여 파일형식으로 소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에 담아두기만 하면 태블릿 PC나 스마트 폰으로도 언제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많은 저에게 매우 유용하였습니다.

이렇게 RISS에서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여 선행연구를 하였고 출산 두 달 만(2017.8)에 프로포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 년 후, 육아 휴직이 끝나면 직장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1년 남짓한 시간을 알차게 보내서 논문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이 점점 더 몰려왔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서는 앞선 연구들 중 유초 연계교육과정개발 연구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다른 연계교육과정 개발 연구물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면 연구 방법이 그려질 것이라고 조언해주셨고 저는 유초 연계교육과정 개발을 검색했으나 유초 연계 가운데 교육과정 개발을 다룬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폭을 넓혀 '교육과정 개발'로 다시 분석하였습니다.



학위 논문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유형별보기를 통해 기관, 연도, 학위 유형 등을 설정할 수 있어 검색시간을 줄여 효과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학위논문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 이를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7월 드디어 '누리과정과 초등 저학년용 연계한 교육과정기준 개발 연구'라는 논문으로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학교 도서관까지 편도 1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이를 키우는 일 년 동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무거운 학술 문서들을 일일이 찾아서 가지고 다니는 수고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무거운 날에 비라도 오는 날이면 책만 빌리고 집에 가도 지치기 마련이니까요. 논문 문서 작업 역시 외부보다는 집에서 칩거하다시피 하여 진행되었고요.

외부 활동이 제한된 산모로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런 일들이 건강관리만 잘 한다면 가능하다는 점은 휴직하는 기간을 효과적이고 알차게 보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학위를 따라 한다는 부담감과 육아로 피곤함에 지들어 가끔 무슨 내용인지 파악도 안 되고 읽히지 않은 때도 많았습니다. 출산 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을 읽는다는 것이 시력이나 자세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더군요.

또 간밤에 작성한 내용들이 도대체 무슨 말들이었는지, 아침이 돼서 다시 읽노라면 뭐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정신없이 할 일들을 하다 보니 산후 우울증이 올 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가능했던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기 쉬운(user-friendly) 형태의 학술정보 서비스(RISS)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간단한 키워드 검색으로 관심분야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 나와 관련 있는 연구물들을 모아서 유목화 할 수 있다는 점이 RISS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본 사이트의 장점을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혹은 앞으로 겪게 될 분들이 알고 이를 활용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우연히 들른 홈페이지에서 공모전과 관련한 안내를 읽고 이와 같은 활용법, 활용 방안들이 있으니 하고자 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완성시라고 전하고 싶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RISS운영과 관련하여 보태어 부탁드립니다하는 바람은 이제 대학 외부기관 접속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가 된 저로서는 대학 외부기관 접속자에 상응하는 정보의 폭넓은 제공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꾸준히 연구자로서 학문을 탐구하는데 보다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위 논문들을 훑어보니, 활용도가 나타나 있어 논문이 대중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현 시대에 유익한지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RISS에서 조회되고 있지 않지만 몇 달 후면 제 논문도 검색이 될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RISS에 키워드 검색에서 제 논문이 활용도 있는 논문으로 평가받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RISS를 방문하겠습니다.

연구자로서 학위를 마친 것에서 나아가 평생 교육의 측면에서 꾸준한 연구를 하고자 할 때 제가 학위논문에서 연구물들을 탐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RISS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편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요구와 의지만 있으면 연구하고 탐색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ISS' 활용으로 쉽고 똑똑해진 학술지 발간업무

20여 년 연구생활에 동행해 준 RISS

RISS가 올해로 스무 살을 맞이했으니, 저와 동고동락한지도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1999년 석사과정 때 학위논문을 준비하면서 RISS와 운명적 만남을 가졌고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강의를 다닐 때도, 논문과 칼럼을 쓸 때도 RISS는 아낌없이 자료를 내어줬습니다.

RISS의 고마운 동행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되었습니다. 학예연구직의 특성상 연구 활동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 중에서 무형문화재를 전공한 저는 매년 가능한 연구논문을 한편 이상 내어놓기 위해 RISS에서 제공하는 검색과 원문활용을 수 없이 클릭하며 방문하기를 거듭하곤 했습니다. 이렇듯 RISS와 저의 관계는 개인적 연구 활동 범위 안에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 연구에 활용한 RISS와의 인연만을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RISS를 두고 제 직장에서 벌어진 각별한 에피소드와 함께 RISS 활용의 확장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소제목을 붙이자면 일명 "RISS의 활용은 어디까지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학술지의 RISS 참여 필요성

제 직장인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 KCI 등재 학술지인 『文化財』지를 매년 4차례 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 또한 논문(「무형문화유산으로서 말총공예 전통의 지속과 변화」, 『文化財』, 제47권 제3호, 2014)을 게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 어느 날 평소 친분이 있는 전통문화대학교 공예학과 최 모 교수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무형유산 공예와 관련한 정보를 찾고 계셨고 제게 자료 부탁 차 연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마침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文化財』지에 게재한 제 논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별쇄본을 받아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며 RISS에서 찾아 인용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 다시 전화를 주셔서 말씀하시길 RISS에 검색해도 제가 쓴 해당 논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RISS에서 으레 남의 논문을 검색하고 원문서비스 받는 것이 주된 활용이었기에 제 논문을 검색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에 당연히 제



논문이 RISS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라 여겼기에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정을 알고 보니 우리 연구소에서는 『文化財』지를 아직 RISS에 등록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의외의 사실에 저는 『文化財』 담당자를 찾아가 RISS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1965년부터 발간되어 온 『文化財』지에 게재된 논문이 957편, 전체 68권이며, 이들 논문은 문화재의 제 분야(고고, 미술, 건축, 보존, 자연, 무형)가 수록된 국내 유일의 학술지임을 감안하여 첫째, 학술지의 홍보와 인용률 제고를 위해서 둘째, 저자들의 대한 예의로서 셋째, 문화재 분야의 정보를 연구자들이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RISS에 가입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저의 이러한 제안은 받아들여져 2015년 『文化財』지가 RISS에 등록되었습니다. 당시 담당자인 김오정연구사가 RISS에 전화하여 안내를 받은 후 '학술정보 웹 호스팅 참여 신청서(현. 학술정보 RISS공동활용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입이 무료임에 감동하고 2015년부터 서비스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는 RISS가 수많은 연구자들로부터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RISS에 등록함으로써 1965년부터 『文化財』에 실린 수많은 논문들의 검색과 원문제공이 가능해졌으니 결과적으로는 연구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알게 모르게 축적되었을 『文化財』에 원고가 게재된 필자들의 불만 또한 한꺼번에 해결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文化財』지는 한통의 전화와 한명의 연구자가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2015년에 늦깎이로 RISS 참여 학술지가 되었답니다.

학술지 발간업무에 활용도 높은 RISS

그로부터 2년 후인 2017년, 학술지의 RISS 등록 필요성을 외치던 제가 공교롭게도 『文化財』 발간업무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개인연구로 맺어진 저와 RISS는 이때부터 새로운 관계양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文化財』 학술지의 매호마다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을 통해 심사위원을 섭외하고, 최종 심사를 통과한 논문을 게재하여 책자로 발간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학술지 발간을 담당하면서 저는 세간의 큰 관심사인 연구윤리와 표절문제에 매우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고논문을 표절검사시스템을 통해 검토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지만 표절의혹 신고가 접수된 논문의 경우 일일이 참고원문과 접수논문을 대조하여 체크하기를 거듭해야 합니다. 매호마다 접수되는 논문이 15~20여 편이므로 RISS 활용도는 더 높아진 셈입니다.

한편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학술지의 RISS 등록을 기점으로 『文化財』지의 논문영향력지수(IF)가 매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쯤이면 RISS의 활용이 개인의 연구 활동에 머물지 않고 기관차원으로 확장되어 개인은 물론 기관의 위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아도 손색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는 연구소는 문화재청 소속기관이자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국가책임운영기관이기도 합니다. 매년 기관의 성과를 집적하여 국민에게 서비스해야 하는 사명을 지닌 곳입니다. 우리 기관에서 『文化財』지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학술지입니다. 연구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매개이기도 하며, 문화재와 관련한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자들의 논문이 실리는 국내 유일의 문화재 종합학술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RISS가 학술적 공신력과 신뢰감을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끝맺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RISS를 처음 만났을 때 20대였던 여학생은 이제 마흔을 훌쩍 넘겨서도 RISS의 뒷바라지를 받고 있습니다. 스무 살을 맞이한 RISS가 백수(白壽)를 넘기더라도 『文化財』 학술지와 인연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RISS! 꿈을 펼치는 가장 쉬운 단축키!

그저 평범하게

무난하게, 평범하게, 누구와 다를 것 없이 대학교 4학년이 되었다. 하지만 졸업반이라는 것은 기쁘지도, 좋지도 않았다. 그냥 시간이 지나니 4학년이 되었다. 미루고 미루던 나의 꿈, 그리고 무언가를 펼칠 수 있는 기회는 모두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4년 동안 다니던 대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사회라는 새로운 울타리 안에서 내가 잘해 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부터 앞섰다. 사회에 대해 무지했고 학업도 전공이외에 별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던 중,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미리 혼자 할 수 없다고 단정 짓고 나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지금이라도 무언가에 도전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순식간에 내 머리 속을 채우기 시작했고 그러한 작은 다짐과 생각은 어느 순간 현실이 되어 있었다.

꿈? 현실? RISS!

조기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대학원을 고민하고 있던 올해 초, 우연히 교수님께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2018 GMC(Global Marketing Conference, 국제 마케팅 학술대회)가 개최되는데 같이 연구 논문을 작성해서 발표해 보지 않을까?' 라며 제안을 하셨다. 이러한 작은 제안은 지금 커다란 나의 커리어, 자랑거리가 되었다. 물론, 이 학회는 2년에 한번 개최되며, 총 57개국 1700여명의 전 세계 연구원 및 교수님들이 발표자로 참가하는 곳이고 모두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지기에 과연 학부생인 내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었다. 하지만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바로 알겠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다. GMC에서 발표를 하려면, 논문의 초록을 먼저 제출한 후 자격이 주어져야 발표하고 참여할 수 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나는 학부생 최초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냈다. 그 당시, 네이버에 GMC라고 검색하면 우리의 수상 뉴스기사들이 가장 먼저 쏟아져 나왔고 학교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었다. 하지만 논문을 찾는 방법부터 배워야 했기에 결과에 반해 연구 논문 작성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이렇게 RISS와의 첫 만남은 시작되었다. 방대한 논문자료 서치와 많은 자료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고 FRIC(외국학술지원센터)자료의 경우 무료로 인쇄하여 자택으로 받을 수 있는 점, 그리고 **경성대학교에서 구독하는 국내학술지의 경우 중앙도서관과 연계된 RISS에서 무료로 제공되어 진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하루에도 RISS에 등재된 수 십 개의 논문들을 읽어보고 또 읽어봤던 것 같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논문의 99%가 모두 RISS에서 공부하고 인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내가 연구에 한계를 느낄 때마다 RISS에 들어와 답을

찾았을 만큼 많이 의지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과부하'였던 것일까. 매번 지도 교수님께서서는 핵심을 잘 모르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곤 하셨다. 핵심 논문, 연구 모형, 이론적 배경, 가설... 모든 것들이 생소했기에 교수님의 말들을 이해하려 RISS를 찾고 또 찾으면서 해답을 알아내려 애썼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는 RISS의 수많은 논문자료들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논문들을 정리하여 찾는 '빠르게 Key 논문 찾는 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RISS에서 찾고 싶은 주제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을 주로 연구했던 대표 저자의 이름과 함께 최근 작성된 연도로 같이 검색하는 것이다. 더욱 파고들고 싶다면 '결과 내 재검색' 기능을 이용해 핵심 키워드를 검색하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고 인용할 수 있었다.



경성대 학부생 '2018GMC'서 우수논문상 부산일보 | 2018.08.20. | 네이버뉴스 | [☞](#)
열린 '2018 GMC'에서 학부생 우수논문상(사진)을 받았다. 패션디자인학과 4학년 백민정, 장현주 씨는 '물입과... 백 씨는 'GMC'라는 세계적인 마케팅 학술대회에 발표할 기회가 주어 진 것만으로 정말 감사했는데...



경성대, '2018 GMC'에서 학부생 우수논문상 수상 일요신문 | 2018.08.11. | [☞](#)
'2018 GMC(Global Marketing Conference)'에서 학부생우수논문상(Best Undergraduate Paper Award)을 수상했다고 11일... 힘들었지만 GMC라는 세계적인 마케팅 학술대회에 저 회 연구를 발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 경성대생들, '2018 GMC'서 학부생... CNB뉴스 | 2018.08.11.
↳ 경성대 학부생, '2018 GMC'서 우수... 한국대학신문 | 2018.08.11.



경성대 학부생, '2018 GMC'서 우수논문상 수상 데일리한국 | 2018.08.10. | [☞](#)
'2018 GMC(Global Marketing Conference)'에서 학부생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사진=경성 대 제공 [부산... '2018 GMC(Global Marketing Conference)'에서 학부생 우수논문상을 수 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성대 패션디자인학과...
↳ 경성대, '2018 GMC'에서 학부생 우... 대학저널 | 2018.08.10.
↳ 경성대 '2018 GMC (Global Marketi... 부산일보 | 2018.08.10. | 네이버뉴스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Undergraduate student? Wow.”

도쿄에서 개최된 GMC에서 나의 논문 발표가 끝난 시점, 내게 처음 들려왔던 대화다. 한 사람의 말에 모두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우리 챗터를 담당했던 대표 교수님께서도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이내 박수를 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학부생이 논문을 적었다는 것조차도 믿기지 않고 논문의 주제와 내용도 정말 훌륭하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셨다. 정말 큰 목표였던 GMC였기에, 무기력하던 나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던 RISS가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와 과정 모두가 나에게 너무나 크고 벅찬 선물이었다. 공부하고 고생했던 모든 순간들이 스쳐지나가면서 희망과 또 다른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한가득 찼었던 것 같다.

Don't worry, Friend!

아직 자료를 검색하는 데 있어 서투르고 부족한 점이 많다. 하지만 처음과 달리 제목과 내용의 결과만 보고도 어떠한 논문인지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생겼다. 느리지만 점점 발전하고 커가는 나의 모습에 확신을 가지고 하는 자신감도 생겼다. 많은 연구 논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 개선방향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 내가 연구하는 논문 역시 등재된 수많은 논문들 중 하나가 될 뿐이지만 누군가의 연구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낀다. 내가 도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랄까.



많은 이들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었다. 그렇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전 나에게 목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꼭 해내고 만다는 도전의식으로 자리 잡는다. 지금도 ASMR 마케팅에 대한 연구논문을 계속 작성 중에 있지만, 주제 자체가 아직 연구가 많이 부족한 경향이 있어 애를 먹었던 기억이 많다. 하지만 나의 마지막 목표는 이렇게 완성된 나의 논문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결다리인 RISS에 등재되는 것이다. 논문을 작성하고 있으면 교수님께서 항상 나에게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다. 나도 지금 그 말을 모든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다.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힌 친구들이여!

꿈을 펼치는 단축키는 가까이 있다!”



RISS로 한 단계 거듭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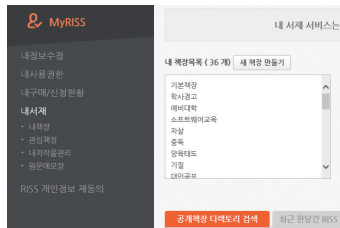
Always in beta! 끊임없이 나아가라!

이 문장은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의 「제4차 산업혁명」에서 인용한 문장으로 ‘발전’, ‘나아짐’을 의미한다. 내 삶에서 학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하는 일의 대부분이 연구인만큼 양질의 최신 자료를 찾고 연구나 강의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걸음 나아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은 언제나 진행 중이다. RISS는 연구와 논문심사에서는 학문적으로 거듭나게, 전공 강의에 있어서는 잘 가르치는 방법을 안내해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거듭나게 해주었다.

학문적으로 거듭나기 “연구와 논문심사”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할 때는 RISS가 서비스를 시작한 첫 해였기 때문에 주위에 RISS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문헌을 찾기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았다. 그로부터 10년 후,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할 때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RISS는 편리한 기능이 추가되고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검색하고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로 변모하였다. RISS는 자료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90%이상 절약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특히, 해외논문은 해외학술지논문 서비스를 통해 살펴볼 수 있어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비공개된 자료의 경우 소장처가 명시되어 있어 자료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 자료를 확인하기도 했다.

RISS 검색, MyRISS, RISS Analytics



[그림 1] 내서재의 책장 목록 1

번호	종류	책장명	책장정보
1	비공개	기본책장	
2	비공개	에이대학	교육학 > 교육일반 > 교육학
3	비공개	학사결정	교육학 > 교육일반 > 교육학
4	비공개	소프트웨어교육	기타 > 기타 > 기타
5	공개	중독	인문과학 > 인문학(기타) > 성리학

[그림 2] 내서재의 책장 목록 2

논문을 작성할 때마다 문헌조사는 RISS를 통해 키워드 중심 검색을 하고 MyRISS의 ‘내서재’ 메뉴를 활용해 관심주제의 책장을 생성하여 관련 논문을 정리한다. 필요할 때마다 논문을 검색하지 않고 내서재를 통해 주제별로 모아



놓은 자료들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번 검토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원문다운로드를 통해 자료를 저장하고 인쇄하여 수시로 검토한다.

논문 검색 중 특정 국내 학술DB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볼 수 없었는데, MyRISS의 '내사용권한'에서 소속기관이 보유한 학술DB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학술DB에 대해서는 대학 도서관에 문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RISS 검색에서 '학술지' 항목을 선택해 해당 학회를 찾고 어떤 주제의 논문이 실리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학술지에 대한 정보와 함께 논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최근 논문들을 한 번 더 검토한다. 또한 논문을 제출할 학술지를 찾기 위해 작성된 논문과 같은 분야를 다루고 있는 학술지를 검색하고 해당 학술지의 기 출간된 논문을 살펴본다.

연구자로서 연구 분야에 대한 관심은 연구 주제를 찾는 것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게 한다. 전공 분야의 연구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RISS Analytics'를 통해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연구주제를 찾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활용도 높은 주제, 주제별 활용 통계분석, 학술지 활용도 분석을 통해 연구트렌드를 읽고 연구 주제를 찾는다. 또한 최신학술자료에서는 RISS에 탑재되는 최근학술자료를 주제별로 살펴볼 수 있다. 연구 주제 선별 시 교육학 분야의 다양한 주제가 연구 대상이 되고 방대한 자료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울 때, RISS의 분석 자료가 도움이 되었다. 메일로 받아 볼 수 있는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키워드로 검색하는 인기 논문과 특정 분야의 활용도 높은 논문 목록을 확인하고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특정 분야의 연도별 활용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거듭나기 “전공 강의”

강의교재나 강의자료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RISS의 최근 연구 자료를 살펴본다. 강의에서는 교수법으로 플립러닝, 토의/토론, 문제기반학습 등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는데 다른 교수자들이 다양한 교수법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논문을 통해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전공 강의에 활용한다. 연구 자료에서 찾아 교수법에 적용한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플립러닝에 활용하는 동영상은 5~10분 내의 짧은 동영상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동영상에 교수자의 음성과 얼굴이 함께 나와야 학습효과가 높다고 한다. 둘째, 토의/토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른 주제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고 참여인원과 주제에 따른 토의/토론 방법을 익혀야 한다. 셋째, 문제기반학습을 활용한 수업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집중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끝까지 완료할 수 있는 문제를 고안해야 한다.

이러한 교수법 노하우는 강의계획서 작성 시 적용된다. 학생들이 수업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여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토의/토론 수업 전 토의/토론 주제와 관련된 자료(논문, 신문기사, 단행본 등)를 2건씩 선정하고 내용 파악하기가 수업 전 과제로 부여된다. 강의계획서의 수업방법에는

강의영상의 분량, 교수법 종류, 교재의 형태를 명시한다. 강의 중에는 적용된 교수법 노하우의 효과와 보완점을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살핀다.

대학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수업에서는 졸업논문에 대비하기 위해 소논문과 관련된 활동이 중간과 기말고사를 대신한다. 강의 시작과 함께 소논문 주제를 찾아 학기중간시험을 대신해 소논문 중간발표를 하고 학기말 시험을 대신해 소논문의 최종 연구 결과 발표를 한다. **소논문 주제 찾기**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RISS사이트를 소개하고 **사이트 활용방법**을 직접 시연하면서 보여준다. **국내·외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검색하여 연구 트렌드를 살펴보고 관심 있는 주제를 찾고 세부 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다음 단계로 **논문의 구성요소를 설명한다.** 2~3개 정도의 논문을 보여주고 연구 주제의 성격에 적합한 논문을 작성의 길라잡이로 활용하게 한다. 이렇게 논문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안내가 마무리 되면 **논문 구성 요소별 내용 작성 방법과 참고문헌 인용법 등을 설명한다.** **중간발표와 최종 연구결과 발표를 위한 파워포인트 자료는 RISS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학회지 학술대회 자료를 참고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논문을 작성하고 나면 학생들은 4학년 때 작성해야 하는 졸업논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 연구 자료를 보는 방법, 사고력 향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연구 시작, RISS

연구는 최신 자료를 찾고 적용하고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고 강의는 학생 중심의 효과적인 교수법을 적용하여 가르치기(교수) 보다는 가리킴(안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와 강의에서 끊임없이 나아가기 위한 노력은 진행 중이고 오늘도 인터넷의 시작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다.



논문검색의 끝판왕 RISS !!!

2018년 8월을 지나며 어느덧 교직에 몸 담은 지 20년이 지났다. 지적장애 특수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나로서는 보통 아이들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지식을 빨아들이는 아이들이 아니라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도움을 받아야하며, 특정한 어느 하나를 배우려면 수백, 수천 번 같은 것을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미소를 지닌 천사 같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배움에 어려움이 있다고 대충 가르칠 수 없고 더욱 열정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시도해보고자 노력을 하게 된다.

교사로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매너리즘에 빠져 옛날 방식 그대로 안주하며 나도 모르게 시대에 뒤떨어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 연구하는 교사로서의 모습으로 매일을 살고자 노력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학술동향에 대해 목마르게 되고 새로운 문제행동 치료나 교수법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솟기 마련이다. 올해는 연구부장을 맡으며 전 교사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수업연구를 하자고 건의를 했다. 우리학교의 경우만 봐도 전체 교사의 반 이상이 대학원까지 나온 전문가 집단인지라 논문이나 학술자료들을 많이 봐 왔을 텐데도 원하는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것에 대해 매우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다. 그래서 내가 대학원 다니며 예전에 나온 논문이나 새롭게 나온 논문을 찾아볼 때 애용했던 RISS 검색 이용방법을 추천했고 오래 전 학교를 졸업하셨던 연륜 있으신 교사 분들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

RISS에서는 국내 대학 및 기관에서 보유하는 학술자료 뿐 아니라 해외의 우수 학술데이터베이스까지 다양한 학술 연구정보를 검색 및 이용할 수 있고, 특히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의 원문을 로그인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끼시는 듯 했다. 그렇게 해서 주제가 비슷한 문헌연구 3편을 연구하여 최신 트렌드를 읽고 그것을 바탕으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논문 검색을 할 때도 통합검색, 학위논문, 국내학술지논문, 해외학술지논문, 학술지, 단행본, 공개강의, 연구보고서 등으로 상세하게 원하는 것을 발췌하여 볼 수 있으니 생각보다 정말 유용한 지식정보의 바다가 따로 없다 할 것이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말귀는 다 알아들으면서 언어로 의사표현을 못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자신의 의사를

어떻게 하면 표현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림교환의사소통체계(PECS)프로그램이 장애학생의 자발적 요구하기 기술에 미치는 효과’라는 주제를 정하고 논문을 찾아 문헌연구를 해보고자 했다. 먼저 통합검색에 주제어(그림교환 의사소통 체계(PECS), 환경중심 의사소통 중재, 자폐아, 뇌성마비, 정신지체)를 입력하여 검색 후 학위논문사항을 보고, 초록본을 보며 내가 찾고 있는 논문인지 확인 후 조금 더 자세히 보고자할 때 원문보기를 통하여 논문을 검색하였다.

또 그 논문을 본 사람들이 함께 찾아봤던 주제어를 참고하거나 그 논문에 기재된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또 다른 논문을 찾을 수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위논문 상세검색 기능인데 논문명이나 저자, 주제어, 학위수여년도로도 검색을 할 수 있어서 족집게처럼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세상 해 아래 새것은 없다고 했던가?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지? 막막한 마음에 힘들어하고 자신감이 결여될 때 RISS검색을 통한 무궁무진한 지식의 보고에 발을 디딘 순간 나의 괴로움은 사라지고 방향을 잃은 듯 헤매던 연구방향이 방향타를 찾은 듯이 선행연구를 살펴보며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한편의 논문도 수많은 논문을 바탕으로 옥동자를 낳듯 발표되었겠지만, 그런 논문을 원하는 방법으로 짜깁기하여 내가 원하는 또 하나의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것에 큰 감사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검색할 때 주제어 정하는 것부터 어느 하나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RISS를 이용할수록 점점 쉽게 다른 사람의 지식에 접근하여 나의 지식을 채워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배워서 남 주나?” 라는 말이 있지만 RISS 사이트를 통해 얻는 지식에 감사하게 되고 “배우면 RISS 사이트를 통해서 남 준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RISS 사이트에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원하는 것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단언컨대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 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2018년 2학기가 되어 1학기 동안 연구했던 문헌연구와 그를 토대로 사례연구를 진행해왔던 결실을 볼 날이 다가오고 있다. 2학기말 과정별(우리학교의 경우는 유치원부터 전공과까지 전 과정이 있음)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나의 사례연구 대상 학생은 그림교환의사소통프로그램으로 의사 표현이 증가하였고, 또 하나의 연구 주제였던 스스로 계단오르내리기도 현재 잘 수행하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의 선행연구를 통해 알게 된 지식과 방법을 장애학생들에게 적용시키고 그 결과가 어떠했음을 앞으로 서로 나누는 기쁨에 벌써부터 설렌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RISS 사이트를 이용하다보니 예전에는 논문 검색만 하던 나는 몰랐던 새로운 기능들이 있는 것에 놀라게 되었다. RISS웹 사이트에서 뉴스레터를 신청하여 최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과 KOCW를 통해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등 내가 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활용해볼 생각이다.



13년 지기, 내 인생의 든든한 교육 동반자

첫 만남

대학교, 직장, 그리고 대학원 과정을 포함한 총 13년간의 긴 시간동안 항상 나에게 (정보를) 주기만 한 존재가 있다. 교수님도, 직장선배도 아닌 그건 바로 RISS이다. 대학교 1학년 때 교양과목으로 들었던 문헌정보학과 수업에서 처음 접하게 된 이후로 과제를 할 땐 네이버가 아닌 RISS를 이용하곤 했다. 간호학을 전공하였기에 대학 실습과목에서 환자 사례 발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정식 간호사가 아닌 학생이었기 때문에 임상 지식이 부족했고 교과서만으로는 내가 맡은 환자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RISS에서 학위논문을 검색하여 질병의 병태생리 및 간호학적 중재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매우 유익했다. 정신간호학 실습 과목에서 우울증을 비롯한 다수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에 대한 사례발표를 준비하던 중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만 활동을 하는 환자의 성향을 고려하여 RISS에서 일본 히키코모리 연구에 대해 찾아보았고 이를 간호학적 중재 방향에 적용하여 같은 조원들과 실습지도 선생님들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이때를 계기로 거의 모든 과제를 준비할 때는 학문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필히 RISS 검색을 통해 다양한 논문들을 활용하였다.

든든한 버팀목(@직장)

대학 졸업 후 서울대학교병원 내과병동에서 근무하게 된 나는 다양한 병명의 중증 내과질환자들을 간호하게 되었고 의학 및 간호학 서적만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RISS 검색을 통한 학술논문으로 채울 수 있었다. 조혈모세포이식 후 식이, 약물, 중심정맥관 등 자가관리법에 대해 궁금해 하던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익한 정보를 주고자 집에서 열심히 논문을 찾아보고 공부하여 다음날 알려주었던 기억도 난다. 이후 이직을 하여 아프리카 및 동남아 일부지역 등의 개도국과 북한을 대상으로 보건의로지원을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근무할 때에는 국제개발학 및 병원경영 관련 논문을 찾아보며 맡은 사업을 잘 이끌고자 노력하였다. 어쩌면 내가 맡았던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건립 사업이 병원의 성공적 개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 RISS가 기여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업 파트너(@대학원)

병원 간호사로 직장생활을 하던 중에도 RISS를 통한 학문적 관심과 흥미를 이어가던 중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총 8학기에 걸친 지역사회간호학 석·박통합과정 중에서도 RISS는 여전한 나의 학문적 파트너였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의학 관련 최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 MEDLINE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엔진인 PubMed와 더불어 가장 많이 방문한 사이트이기도 하다. 올해 2월에는 RISS를 포함한 국내 데이터베이스 두 개와 PubMed를 통한 자료수집으로 ‘장기요양시설의 재난대비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2000~2017)’[그림1]을 하였고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구두발표로 우수상을 받았다[그림2]. 6개월 된 딸 아이 육아를 병행하면서 어렵게 준비한 연구인만큼 더 값진 성과였다. 6월부터 8월까지 RISS와 PubMed를 통한 ‘지역주민 대상 재난교육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을 진행하여 행정안전부 주관의 재난안전분야 논문 공모전에 투고한 상태이다. 아직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어느 때 보다 열심히 준비한 단독 제1저자로서의 첫 번째 논문이라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논문 교과서

친척, 친구, 동료, 선배, 교수님, 그냥 아는 사람,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까지... RISS는 대학원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의 학위논문을 그들에게 굳이 부탁하지 않고도 혼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로이자 나만의 논문 교과서이기도 했다. ‘나는 이렇게나 쓰기 힘든 논문을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잘 썼을까’ 궁금해 하며 찾아보고는 ‘우와~ 제법인데~?’ 또는 ‘흠, 이정도면 나도 금방 쓸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고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매우 잘 쓴 논문을 찾으면 룰모델 논문으로 저장해두고 수시로 열어보곤 했다. 언젠간 나도 RISS에 저자명을 내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학위논문을 포함한 다수의 논문들이 나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보며, 아이가 깊게 잠든 고요한 이 밤에 컴퓨터 앞에 앉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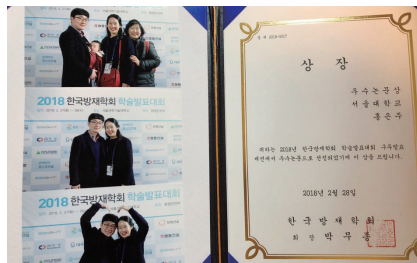
맘카페보다 RISS!

학업과 직장생활 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해서도 RISS의 덕을 제법 보았다. 입덧, 자연분만 시 회음절개술, 모유수유, 젖몸살, 신생아 요로감염 그리고 보행기 부작용 등 임신부터 육아까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네이버나 맘카페가 아닌 근거수준이 높은 RISS를 찾았다. 40주 예정일에 딱 맞추어 별 탈 없이 자연분만을 하고, 분유 한번 주지 않고 완전 모유수유를 하면서 출산 후 지금까지 약 13개월 동안 딸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 또한 RISS의 도움이 컸다. 앞으로 대학원 졸업까지의 남은 여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겐 RISS가 있어 든든하다.

요 지

2010년 로망 인덕요양일 화제사건, 2011년 동양문 화재건, 그리고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시설의 재난대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장기요양시설의 재난대비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을 토대로 학문분야, 재난분야, 연구방법, 연구대상자, 주요 연구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장기요양시설의 재난대비 취약점을 확인하고 개선점과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대표적인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RISS와 KISS를 국외 의학관련 데이터베이스인 PubMed 등을 통해 분석대상 논문을 검색하였다. 총합 논문 108편을 제외하고 총 58편이 검색되었으며, 주제와 관련 없는 계통, 학술대회자료집, 잡지, 사설, 견문 글속 참가 문헌 등 560편과 초록 검토 후 내용상 맞지 않는 2편의 논문을 제외하여 최종 25편이 선정되었다. 국내 대부분의 문헌료를 회색과 관련하여 소양간인을 위한 시설, 운영관리, 법과 제도, 교육과 훈련 등의 부분으로 개입점을 다룬 것으로, 소양간(산발)건과 동일 공간에서의 연구가 적을 수 있다. 반면 우리 연구의 경우 대부분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만큼 취약계층의 관련성에 대해 좀 더 의사결정시 고려사항, 대피/탈출경로에 머무름시 고려사항 그리고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구체적인 재난계획을 다룬 의학·보호·보안분야 등의 보건·의료관련 학문에서의 연구가 주위 어땠다.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화재뿐만 아니라 지진 등의 대형 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일차원 재난대비와 골격 및 보건·의료 분야의 다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작성분야 : 장기요양시설, 대피, 재난대비, 재난계획, 노인



[그림 1] RISS 활용으로 학술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초록

[그림 2] RISS 활용 논문으로 받은 우수상



RISS와 자기주도 학습

저는 2018-1학기 노사관계론 전공수업에서 RIS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그 전부터 RISS를 알고 있었고 과제 등에서 조금씩 도움을 받아왔지만, 특히 2018-1학기 노사관계론 전공수업에서 RIS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노사관계론을 학습할 때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례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례에 대해 잘 정리된 RISS 연구논문은 노사관계에 대해 사전지식이 전무한 상태인 제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실 연구 자료들이 보통 40 페이지 정도 되었고, 제 기준에서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 양상이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수업방식은 일주일에 1시간은 on-line 수업을 듣고 2시간은 off-line 수업에서 토론하는 S-learning 방식이었는데, RISS를 활용해 좋은 자료를 읽고 수업에 임하니 토론에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을 위해 자료조사를 하면서 RISS를 많이 활용하다보니 교수님이 시키신 것 뿐 아니라 RISS에서 스스로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해 관련 논문을 찾아 읽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찾아서 읽었던 논문은 학기가 끝날 때 까지 머릿속에 잘 정리되었고 RISS를 통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한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각종 매체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이 나와도 논문을 읽은 것을 바탕으로 현실문제에 대한 감각과 이해의 폭이 개선되었다고 느낍니다. 대형서점에 있으면 다양한 책을 들춰보게 되는데 RISS도 온라인에서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것 같습니다.

RISS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논문은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의 조직과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정현주, 2017), 『대학 비정규직 전략조직화의 성공요인 분석 :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사례를 중심으로』 (이병훈, 김직수 2014), 『항만노사관계의 갈등사례연구 : 부산항 PECT·UTC부두 노동쟁의를 중심으로』 (백두주, 2010)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 산업별 노조발전과정, 단체교섭이 실패하여 노동쟁의가 된 갈등사례 등 각 사례에 대한 전모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과목에서 A라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RISS의 기능적인 편리함도 학습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활용한 RISS 홈페이지의 Tip들도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RISS의 '내서재'의 '내 책장' 기능을 매우 편리하게 이용했습니다. '내 책장'은 원하는 자료를 폴더화하여 모을 수 있어서 타 영역 자료들과 구분을 가능케 해주고, 찾아본 자료를 즐겨찾기처럼 두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본 자료를 다시 찾아야 할 때 검색했던 키워드가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면 자료를 찾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RISS의 내 서재는 그런 상황을 방지해주어서 이용하는데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 기능은 RISS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책장 자료목록

노사관계론 2018/03/24, 공개, 관심등록수(0명) [자료추가](#)

· 사회과학 > 경영/경제 > 경영학

선택자료 기본책장 으로 이동 [소내보내기](#) | [삭제](#) | [한자변환](#) [등록일](#) [오름차순](#) [페이지당 20개 출력](#) [정렬](#)

번호	구분	제목	저자/소장	보기
1	국내학술지논문	항만노사관계의 갈등사례연구: 부산항 PECT,UTC부두 노동쟁의를 중심으로 (A Case of Study on the Conflict of Port Industrial Relations: Focused on Dispute of PECT and UTC on Busan Ports)	백두주 (Doo Joo Baek) (社倉科...	메모하기 간략보기 원문보기URL W
2	국내학술지논문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rganizing Laborers in Special Employment)	백두주 (산업노동연구, Vol.9 No.2...	메모하기 간략보기 원문보기URL W
3	국내학술지논문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 노사관계의 전개과정과 특징- 198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Labor Relations in Korean Medical Industry - from 1987 to Now -)	송광선(Kwang-Sun Song) (經營...	메모하기 간략보기 원문보기URL W
4	국내학술지논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조직과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f Organization and Strategy of Development of 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정현주(Jeong Heon-Ju) (노동연...	메모하기 간략보기 원문보기URL W 복사/대출신청
5	학위논문	산업별 노동조합의 결성과정 비교분석 및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 : 금속, 의료,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 (A)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Organization Process and Establishing Plans of the Industrial Union : Based on the Metal, Medical, Financial Industry	정성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	메모하기 간략보기 원문보기

[그림 1] 2018 1학기 RISS 내 책장(노사관계론) 히스토리

두 번째로, 저는 매주 노사관계 주제에 대해 수업에서 토론을 하느라 제가 읽었던 RISS의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준비해 가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깜빡하고 프린트를 놓고 왔을 때는 휴대폰에서 RISS를 사용하였습니다. E-book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도 필요하다면 휴대폰으로 원하는 정보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RISS 통합검색에서는 최신 순 검색 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할 때 최신의 자료로 근거를 대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었는데, 포털사이트처럼 최신 순으로 검색할 수 있어서 원하는 자료를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내서재'의 '관심 책장'이라는 기능도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자료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주제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에라도 조별활동을 하게 된다면 친구와 이 기능을 활용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RISS를 사용하며 느낀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RISS에서 뛰어나신 연구자분들의 자료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이유에 좀 더 깨달았습니다. 연구 자료들에는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시키려는 필자의 노력들과 식견이 나타나 있는걸 보면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현실 혹은 과거를 개선시키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교과서만



보고 수동적으로 공부했다면 얻기 힘들 깨달음인 것 같은데, RISS의 연구 자료들에 있는 노력의 흔적을 보다가 우연히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현상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는 힘들겠지만 RISS를 통해 관심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자기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동안 몰랐던 연구의 가치와 자료의 가치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RISS에서 처음으로 유료결제를 하여 자료를 이용해보았고 결제를 해서 본 만큼 정보를 소중하게 읽고 학습에 활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활을 마무리하는 4학년에 있는데, 이번학기의 경험을 계기로 이제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사촌동생에게도 RISS와 KOCW를 추천하였습니다. 앞으로 RISS의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높이 평가받을 것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였지만 거짓정보와 가짜뉴스 등이 많고 부정확한 자료들도 많습니다. 양질의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RISS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저의 앞날에 다방면으로 RISS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 뿐 아니라 일반 중·고등학생에게도 RISS가 공유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ISS & KOCW 우수활용사례집

KOCW를 활용한
2018년도의 우수 사례
11작품을 소개합니다.

About KOCW

- ★ 대 상 : 일류 엔지니어의 꿈, KOCW로 날개를 달다 (현대다이모스, 박찬호)
- ★ 최우수상 : 우리 꿈의 든든한 지원군, KOCW! (휘문고등학교, 이강희)
- ★ 최우수상 : 목표를 생각하고 고민하면 “모두를 위한 해결방법”이 떠오른다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 김성준)
- ★ 우수 상 : 방향에서 벗어난 새로운 도전, 대학 강의 따라잡기 (이화여자대학교, 심소은)
- ★ 우수 상 :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곁을 함께하는 동행자, KOCW (제주대학교, 강현주)
- ★ 우수 상 : 새로운 지식을 넘어서게 하는 나의 조력자, KOCW (중국 화동사범대학교, 진윤주)
- ★ 행 운 상 : KOCW, 가난한 공대생의 멘신이 되어준다 (경희대학교, 류한철)
- ★ 행 운 상 : KOCW로 1등했습니다. (중앙대학교, 김태영)
- ★ 행 운 상 : KOCW를 활용한 대학원 스터디 모임의 학습능률 향상 사례 (경북대학교, 황성운)
- ★ 행 운 상 : 나의 꿈에 날개를 달아준 KOCW (경기도교육청, 장지수)
- ★ 행 운 상 : 나의 선배교수, 동료교수, 그리고 멘토교수 (호남대학교, 이문영)



일류 엔지니어의 꿈, KOCW로 날개를 달다

1. KOCW와의 첫 만남

저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9년차 엔지니어입니다. KOCW를 처음 알게 된 것은 현 직장에 입사한지 4개월만이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언급된 '4차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사내에서 화두가 될 즈음 당시 직장 상사 분께서 미래의 자동차는 뛰고 날아다니는 반도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며 곧 세계 터닝포인트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귀뜸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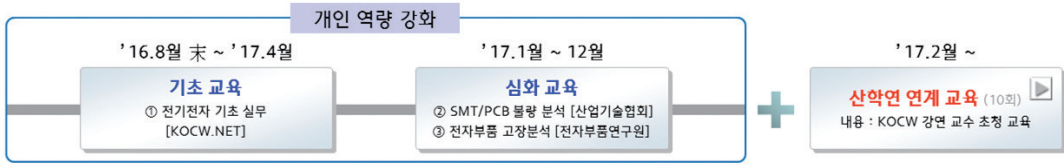
전기자동차	연료전기자동차	지능형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그리고나서 2개월 뒤, 저는 임원 분의 지시로 전장(전기/전자 장치)전문가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반도체 업무를 수행한 경험은 있지만 보다 몇 레벨 위의 부품군을 이해하고 관리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논문검색을 위해 활용했던 RISS를 통해 알게 된 KOCW가 곧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인터넷에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김경훈 소장님의 '4차산업혁명과 기술트렌드'라는 KOCW 강좌를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얹어준 이 사건은 잠재되어 있던 제 역량을 스스로 끄집어 내주는 기폭제 역할을 했으며, 수많은 웹사이트 중에 KOCW와 인연이 되게끔 해준 고마운 사건이었습니다. '4차산업혁명'과 '전장전문가'라는 단어가 이어준 KOCW가 이토록 저에게 엄청난 터닝포인트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 사내 KOCW 홍보대사

과거 기계 공업의 집합체이던 자동차가,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적인 자동차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점차 전장 부품의 집합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 전장 부품의 배경지식인 전자회로와 임베디드 강좌를 KOCW를 통해 수강하게 되었고, 품격 있는 강의 내용에 내부 전파의 필요성을 느껴 사내 직원들에게 직접 동영상을 보여주며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 전장 특화 교육 프로세스 (전문인력 선정 : '16. 8월)



이후 호응이 매우 좋아 전자회로기초와 임베디드 시스템 강좌를 강연해주신 한국기술교육대 강기호 교수님께 메일, 그리고 유선으로 정중히 문의 드린 후 전자 세미나에 초청을 하여 직접 강연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KOCW를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회사 내부 조직개편에도 영향을 주어 2017년 3월에 전장파트가 신설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룹사 홈페이지에도 '혁신이야기' 기사로 소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전문 R&D 역량 확보를 위한 전장품질조직 활동'



▲ 왼쪽부터 김양중 대리(파트장), 서울과학기술대 임형식 교수님, 이길수 사원, 박찬호 대리, 최진수 사원

현대다이모스의 파워트레인 전장품질파트가 신설된 건 2017년 3월이었습니다. 향후 파워트레인 전장화구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장품질파트는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역량 향상을 위해 매주 금요일 자체 교육 및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활용하고 있는 무료 강의 사이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다양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①고등교육 교수 학습자료 공동활용 서비스 KOCW (Korea Open Course Ware) : <http://www.kocw.net>

누구나 가입없이 국내 대학 강의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으며, 가입 후에는 개인별 학습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3. KOCW 활용 사례

전장파트가 신설된 이래로 꾸준히 KOCW를 활용하여 자체 세미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 1회씩 담당자들이 발표를 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는 등 업무와 연계된 흥미로운 주제들이 매주 세미나를 기다리게끔 해줍니다.



먼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4명이 각각 다른 교수님의 강좌를 듣고 발표를 해보았습니다. 첫 발표에는 **임옥택 교수님의 [자동차공학]**, **이성욱 교수님의 [자동차공학 기초]**, **국창호 교수님의 [자동차 정비 기사/산업기사]**, **하성용 교수님의 [자동차공학실습]** 강좌를 각각 학습한 후 자동차 기본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대학의 교육과 직장에서의 현업이 가져올 수 있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꿈꾸고 있는 전장파트는 요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관심으로 나날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 품질 문제가 발생이 된 사례를 분석할 때 기본 배경 지식이 원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해당 보고서에 첨부되고 있으며, 실습 강좌를 통한 실제 검증도 절차에 따라 해보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4. 향후 기대 효과

KOCW를 접하고 2년 반이 지난 지금,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된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KOCW에서 학습한 이론 지식을 9월부터 테마연구회를 통해 본부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하게 되었으며, 2019년 말 양산 예정인 대형 프로젝트의 핵심부품을 전장파트에서 주관하게 되는 등 지식이 축적될수록 신뢰도가 향상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가 시켜서가 아닌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일류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전문분야 강의를 집중해서 학습할 수 있고, 여학도 활용할 수 있는 멋진 KOCW가 있어서 더 이상의 두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KOCW라는 날개를 달고 일류 엔지니어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KOCW 화이팅!



우리 꿈의 든든한 지원군, KOCW!

ASK(Admiring the Strength of Knowledge)

- 휘문고 2학년 이강희, 안성빈, 남기연, 변승의, 최민준, 권오민, 이상연, 이승우-

8월 19일, 우리는 마지막 자율동아리 활동을 마쳤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지난 반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 자율동아리는 정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토론하며 활동했다. 그리고 이렇게 알차게 반년을 보냈는데도 아직도 자율동아리를 결성하기로 했던 학기 초가 어제 일과 같이 생생하다. 그때 우리 부원들 모두 꽤나 고생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중 가장 고민했던 것은 바로 '주제'였다. 8인 모두 자신의 2학년 생활에 대해 자신 나름의 비전과 미래가 있었고 각각 관심 있는 학문분야가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8인의 흥미가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서로 의견을 제시하며 고민하던 중에, 정말이지 천재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아이디어가 하나 번뜩 떠올랐다. 8인의 흥미가 다르다면, 8인의 흥미를 모두 연구하면 되는 것이었다. 모두 같이 모여 하나의 주제를 파지 않고 부원이 각각 자신의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자신이 배운 내용을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관심분야를 정하기로 탐구하기로 했고 이때 KOCW를 만났다.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대해 탐구했다. 뇌과학, pn접합 다이오드, 데이터 마이닝, 인공지능... 생각해보니 이는 KOCW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정해진 교육과정 이외에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광범위한 분야에서 필요로 했고 최신 기술의 동향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부원들이 모인 만큼 최신 기술에 관해서도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구해야만 했다. 그런 정보원을 찾고자 고민하던 내 앞에 혜성같이 나타난 것이 바로 KOCW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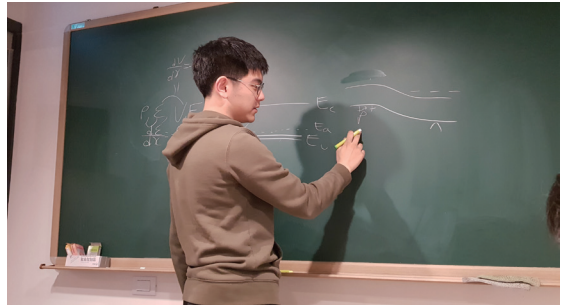
나는 주제를 정할 때 굉장히 난감했던 기억이 난다. 특히 내가 우리 동아리 첫 발표를 맡았기에 더욱 어려웠던 것 같다. 그래서 주제에 대해 고민하며 KOCW 사이트에서 여러 강의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전에 머릿속을 맴돌던 의문이 다시 떠올랐다. 학교 물리 I 수업에서 전자 전기와 신소재 부분에 관해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pn접합 다이오드에 관한 교과서의 설명에 딱히 납득하지를 못하였다. 그러나 막상 더 찾아보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했다.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도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 한 명만을 위해 교육과정 외의 복잡한 내용을 설명 해 주실 수 없었다. 집에서 일반물리 책을 펼치고 처음부터 전자기학을 공부하려 하니 이 또한 너무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자연히 이



궁금증은 곧 머리 한 구석으로 밀려난 채 점점 잊혀져갔다.

KOCW 추천강의

그래서 KOCW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다 **신창환 교수님의 강의, 'PN 접합 다이오드는 왜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릴까?'** 라는 제목을 보고 이 의문이 다시 한 번 머릿속에서 부활했다. 그리고 대학강의인 만큼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 강의를 보았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설명에 납득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강의에서 여러 가지 처음 보는 개념들이 나왔는데, 아직 **고등학생인 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서 좋았던 것 같다.** 그렇게 나는 지적 호기심도 충족시키고, 친구들한테도 내가 배운 것을 설명하며 무사히 첫 발표를 마칠 수 있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과거에 풀리지 않았던 의문도 해결하고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생길 의문점, 호기심들을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게 되어 굉장히 유익한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PN접합 다이오드에 관한 발표 사진

나는 자율동아리가 막 시작되었을 때, 우리 동아리의 방향성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자유롭게 원하는 분야의 지식을, 그것도 그저 수박 겉핥기식의 지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지닌 지식을 자유롭게 탐구하는 동아리는 아마 우리 동아리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주제를 택할 때에 고심 끝에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를 좌지우지할지도 모른다는 인공지능에 대해 탐구하기로 했다. KOCW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많은 강의들을 둘러보았고, 나는 그 중 **이건명 교수님의 '인공지능'** 강의를 선택하였다. 그렇게 주제와 강의를 이미 정하고 동아리에서 각자 자신이 정한 주제를 발표하였는데, 한 친구의 주제를 듣고 꽤나 당황하였다. 그 친구도 인공지능에 대해 연구하기로 정했기에 주제가 겹치는 것이었다.

KOCW 추천강의

그래도 한번 정한 주제를 바꾸기에는 이미 그 주제에 대해 흥미가 어느 정도 생겼기에 걱정은 되었지만 이왕 하기로 한 주제에 최선을 다하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열심히 탐구하고, 이해한 후 식상하거나 재미없지 않게 내용도 확실히 전달되도록 발표자료를 만들었다. 드디어 활동 당일 날,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가짐으로 활동장소에서 내 앞 순서의 똑같은 주제의 발표를 듣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분명 지금 듣고 있는 발표는 같은 주제일 터인데 처음 듣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학문이 얼마나 방대한지 깨달았고 동시에 나의 안일함이 부끄러워졌다. 나는 겨우 같은 주제, 같은 정보원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발표가 겹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학문은 정말로 방대하고, 또 그런 방대한 정보가 우리 동아리가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접근 가능한데 말이다. 그때 앞으로는 학문에 훨씬 진지하게 임해 어떤 지식이 궁금하면, 단편적인 지식만을 습득하고 안주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려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현재 목표는 적어도 지금 우리 자율동아리가 사용하는 KOCW의 인공지능 관련 두 개 강의를 더 보는 것이다!

부원들을 모으고 주제를 선정하며 이 동아리를 조직하게 된 나는, 동아리 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반년동안 친구들을 이끌어왔다. 우리 동아리의 가장 큰 목표는 부원들 각각 관심있는 분야를 깊이 탐구한 후에, 친구들에게 그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부원들이 관심분야와 사고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었다. 나는 이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이 필요한지를 많이 고민해 보았다. KOCW에 존재하는 방대한 양의 강의를 이용해 부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탐구하고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것도 분명 좋은 방식이었지만, 나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그저 발표자의 강의를 보고 넘어가기만 한다면, 발표한 친구는 심층 탐구라는 목적을 이루겠지만 청중들의 사고는 강의를 듣기 이전과 비교해도 보다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나아가지는 못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KOCW 추천강의

그래서 나는 우리 동아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강의를 이용한 발표 이외에도 '토론'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시도해 보았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나는 우선, 발표자들에게 자신의 발표 주제와 관련된 토론 주제를 2개씩 선정해 와 달라고 부탁했다. KOCW의 강의를 활용한 발표가 끝난 뒤에는, 발표자가 선정해 온 토론 주제로 부원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한경호 교수님의 '4차 산업혁명과 현대기술' 강의를 이용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발표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적 문제, 이무열 교수님의 '알기 쉬운 뇌과학' 강의를 이용한 뇌과학에 관한 발표에서는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관한 문제 등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나왔고, 부원들도 열심히 자신의 의견을 밝혀주었다. 단순히 강의를 듣고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원들은 자신이 발표를 듣고 새로 습득한 지식을 통해 토론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봄으로써 그 주제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발표자가 선정해온 주제로 부원들이 토론을 하는 모습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바쁜 시기에도 동아리 활동에 성실하게 임해준 부원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주제를 정하고, KOCW를 수없이 돌아보며 강의를 검색하고, 피곤에 눈이 감기는데도 열심히 PPT를 만들던 부원들의 수고와 열정에 너무나 감사함을 느낀다. 반년동안 친구들과 열정적으로 토론했던 이 기억들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고등학생의 신분임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해 준, 8명의 흥미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었던 이 동아리 활동이 가능하게 해 준 든든한 정보원, KOCW에 정말로 감사한다. 우리 말고도 전국의 많은 고등학생들이 KOCW에 대해 알게 되고, KOCW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고마워요 KOCW!



목표를 생각하고 고민하면 “모두를 위한 해결방법”이 떠오른다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인간을 상대하는 직업으로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일까?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뜨겁고 향후 10년 안에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말에 설렘과 두려움으로 어지럽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교도관은 인간의 감수성을 다뤄야하기 때문에 대체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상담의 중요성을 평소 느꼈고 “**임상심리사 2급**”이라는 전문 자격증 취득이 필요함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정생활을 하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사설학원의 강의로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금전적 망설임과 이런 저런 핑계로 미루던 수험준비는 우연히 접하게 된 “모두를 위한 열린 강좌”(이하 KOCW) 관련 짧은 뉴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5년 6월경 우연히 미국 온라인 대학강좌(MOOC) 소식과 MOOC 관련 기사 말미에 우리나라 온라인 대학강좌인 KOCW와 K-MOOC가 소개된 기사를 보면서 **공짜로 훌륭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내용에 눈이 번쩍 가슴은 쿵덕쿵덕... 무료다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열정...지금 생각해보면 우연이 아닌 필연인 것 같습니다.

처음엔 무료강의가 얼마나 내실이 있겠냐라는 반신반의하며 첫 강의를 듣자마자 놀라움이란 와~현장강의 녹화라서 그런지 생동감 넘침과 대학생활이 오버랩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강의 질에 대한 의구심은 바로 사라지고 믿음만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임상심리사 2급의 1차 시험은 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 등 5과목으로 객관식 시험이며, 2차 시험은 임상실무 과목으로 주관식으로 치러집니다.

우선 시험 준비는 1차 객관식 시험보다 2차 주관식 시험 준비를 위해 **양윤 교수님의 “심리학의 이해”**를 시작으로 **이주희 교수님의 “상담이론과 실제”**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kocw 인기 강의!

kocw 인기 강의!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들의 강의를 요약하고 기본서를 참고하여 서브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대학교재는 주로 인근 도서관에서 무료로 대출하였습니다.)

사설학원의 강의는 주로 요약서를 읽어주는 수준으로 깊이 있는 학습엔 한계가 있으나 KOCW의 교수님들의 수업은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심리학이나 상담학의 경우 과목별 상호연관성이 많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단편적인 지식으로 관련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KOCW의 강의는 가장 효율적이고 훌륭한 강의라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KOCW에 심리학과 상담학 강의를 많이 업데이트되었고, “임상심리사 2급” 시험과 관련된 추천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리학개론 : 심리학의 이해(이화여대, 양윤 교수), 심리학개론(중앙대, 박준성 교수)
2. 이상심리학 : 이상심리학(단국대, 임명호 교수), 이상심리학(인제대, 김명찬 교수)
3. 심리검사 : 심리검사(숭실사이버대, 고진경 교수), 심리검사(충남대, 최승원 교수)
4. 임상심리학 : 상담심리학(강남대, 유제민 교수), 상담심리학(중앙대, 박준성 교수), 정신간호학1(충남대, 오경옥 교수)
5. 심리상담 : 상담이론과 실제(동신대, 이주희 교수), 상담이론과 실제(백석대, 한재희 교수)

단, 이상심리학(단국대, 임명호 교수) 강의에서 “정신장애 진단과 통계 편람”(이하 DSM) 내용이 “DSM-5” 강의로 업데이트 되었으면 합니다.

임상심리사 2급 취득을 위한 2015년~2017년도 학습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1차 시험 기본원칙
 - ① 하루 1강 ~ 2강을 듣고 서브노트 작성
 - ② 평일에 빼먹은 강의는 주말에 보충
- (2) 기본강의 및 서브노트 작성
 - ① '15년 6월 : 심리학의 이해(양윤 교수, 15강)
 - ② 7월 : 이상심리학(임명호 교수, 11강)
 - ③ 8월 : 심리검사(고진경 교수, 14강)
 - ④ 9월 : 정신간호학(오경옥 교수, 10강)
 - ⑤ 10월 : 상담이론과 실제(한재희 교수, 15강)
- (3) 심화학습 및 오답노트 작성
 - ① 11~12월 : 서브노트 반복
 - ② '16년 1~2월 중순 : 객관식 문제풀이 및 오답노트 작성
 - ③ 2월 중순~시험 전 : 서브노트 반복 및 오답노트 암기



(4) 2차 시험 기본원칙

- ① 욕심을 버리자.
- ② ①번 원칙을 지키자.

(5) 2차 시험 준비

- ① 3월 : 서브노트와 2차 기출문제집 단권화
- ② 4월~시험 전 : 단권화 내용 반복 학습 및 암기

학습계획을 최대한 지키려 노력하였고 1강의 당 1시간 내외여서 퇴근 후 짬을 내어 들었으며 부족한 부분은 휴일에 보충하였습니다. 과목별 한 달을 기준으로 넉넉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크게 부담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큰 부분은 강사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강사라 하더라도 강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시험에 합격하기는 요원합니다. 하지만 KOCW의 현직 교수 강의는 신뢰도에서 최고입니다. 해박한 심리학적 지식은 강의뿐만 아니라 수험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차분히 계획을 지키려 노력하였고, '16년 3월에 치뤄진 1차 시험에 가뿐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격증 시험 특성상 1차 객관식 시험보다는 2차 주관식 시험이 중요하지만 일단 1차 합격을 해야 2차를 볼 수 있으므로 합격의 기쁨을 최대한 누렸습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 후 약 한 달 가량 후에 시험을 보게 되지만 좀 더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17년도 2차 시험을 목표로 수험준비를 하였습니다. 2차 시험은 약술형 시험이라서 이해와 암기는 필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암기라는 큰 장애물을 만나면서 특히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이 부분이 치명적인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암기방법은 "욕심을 버리자"입니다. 솔직히 직장생활하면서 수험준비를 하는 것은 철저한 준비와 실행뿐입니다. 실행을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하루에 한 문제라도 확실하게 암기하는 것입니다.

암기가 잘 안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서브노트를 참고하였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해당 부분의 KOCW 강의를 들으면서 최대한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KOCW의 도움과 저의 노력이 '17년 11월 "임상심리사 2급" 최종합격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추신> '18년에는 “청소년 상담사 2급”을 준비하고 있으며, '19년에는 “사회조사분석사 2급”에도 도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KOCW의 훌륭하고 양질의 강의는 현재진행형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열린 강좌”에서 좋은 강의를 만나고 싶습니다.

〈KOCW 추천강의〉

1. 사회조사분석사 2급

- ① 조사방법론 I, II : 조사분석법(중앙대, 박준성)
- ② 사회통계 : 심리통계(중앙대 박준성)

2. 청소년 상담사 2급

- ①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청소년발달(목포대, 백지숙), 상담이론과 실제(동신대, 이주희)
- ②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통계(중앙대 박준성)
- ③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심리검사(송실사이버대, 고진경), 심리검사(동서대, 박성미)
- ④ 이상심리 : 이상심리학(인제대, 김명찬)
- ⑤ 집단상담 : 상담심리(성덕대, 장혜경)
- ⑥ 가족상담 : 가족치료(중앙대, 박준성)



방향에서 벗어난 새로운 도전, 대학 강의 따라잡기

1. KOCW 활용 동기

1학년 때 교육학 전공생으로 입학했던 나는 전공공부가 맞지 않아 신입생 때는 공부에 큰 뜻을 두지 않았다. 다만 시험 기간이면 다른 친구들이 도서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벼락치기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잠깐 교재를 훑어보고 들어가는 정도였다. 고등학생 때만 해도 시험 자료를 달달 외우기만 해도 시험을 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던 터라 대학공부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늘 점수는 형편없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지 못했고, 더 큰 문제는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내적 동기가 없었기에 쉽게 낙담하고 쉽게 포기해버리곤 했다.

돌이켜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큰 목적의식 없이 바로 대학을 들어온 나는 꽤나 긴 방향의 시간을 보낸 듯하다. 당시에는 그것이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기억을 잘 더듬어보면 마땅히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니었기에 학교도 나가는 듯 마는 듯 했던 것이고, 별다른 의욕도 생기지 않았던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4.3만점을 기준으로 3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점(약 2.3점)을 안고 도피하듯 스페인으로 교환학생을 떠났다.

그 때 스페인에서 들었던 스페인 정치사 수업에 푹 빠져 전과를 하기로 결심했고, 대학 입학 후 처음으로 무언가를 읽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에 큰 갈망을 느끼게 되었다.

당시 사정상 귀국하자마자 전과가 불가능했던지라 정치외교학과 개설 전공수업을 한 개만 듣고 나머지는 핵심 교양수업들로 듣기로 했다. 그러나 뒤늦게 전공공부를 시작해 욕심은 앞서는데, 배경지식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고, 교수님의 수업 외적으로 추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그 때 생각이 났던 것이 바로 KOCW였다. 신입생 도서관 이용교육 때 당시 학교 사서 선생님께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 것이다. 가령 개인이 이용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언어학습프로그램 로제타스톤(Rosetta Stone)이나 교보전자도서관 등을 모두 학교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 한 것이었다. 또 개인적으로 도서관 홈페이지로 로그인을 해보니 [전자자료] ⇒ [eBooks&eLearnings]를 클릭하고 [동영상강좌]를 클릭하니 공무원강좌, 인문학강좌, IT강좌, 어학강좌 등이 화면에 나타났고 그 때 KOCW라는, 다양한 대학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냈다.

2. 시청 강좌 종류와 구체적 활용 방식

먼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찾고자하는 강좌 이름을 검색하여 여러 강좌를 담아놓는다. 한 가지 강의만 선택하여 지긋하게 수강할 수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학교에서 수강하는 강의 커리큘럼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강좌의 강의계획이 똑같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내용을 다양한 강의에서 취사선택하여 수강하였다. 또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여러 강의자의 내용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중요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었다. 물론 콘텐츠도, 강조점도 다르지만 다양한 교수자의 다양한 시각을 학습하게 되어 어려운 내용일수록 심도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아래 기술할 강좌의 제목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잘 활용한 강좌들이다.

KOCW 인기 강의!

먼저, 필자가 학기 중 수강한 [국제정치이론] 강의를 따라잡기 위해 KOCW에서는 [국제정치론 - 서강대학교 이근욱] 강의를 찾아들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에서는 현실주의, 자유주의(신자유제도주의), 구성주의라는 세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진도가 나갔기에, 웹 강좌 역시 이러한 커리큘럼을 따라 선택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찾아들었다. 다음은 KOCW의 국제정치론에서 특히 도움을 받았던 챕터들이다.

- I. 국제안보이론의 핵심- 국제적 무정부상태와 안보딜레마 (현실주의)
- II. 제도주의 - 국제제도의 설계
- III. 구성주의

국제정치론(이론)이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난해한 용어들과 어려운 개념들로 구성되어있어 **수업을 듣고도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필자는 학습 초기에는 강의가 끝나자마자 한 번 더 동영상을 보면서 복습하였지만, 이후 구성주의 부분은 미리 강의를 한 번 듣고 수업에 들어가 연습용으로도 활용하였다. 기억에 더 오래 남는 것은 후자였는데, 처음부터 모르는 내용을 듣는 것보다 **미리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강의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고 수업에 임하는 것이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교양강좌를 학습하면서 KOCW의 동영상강의 뿐 아니라 **강의자료를 활용**하였다. 학교 수업 중 [The Story of Human Language]라는 영어영문학과 개설강의가 있었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인데다가 언어학개론의 내용을 다룬 터라, 처음 들어보는 어려운 용어들이 매우 많았다. 그러다 KOCW에서 [언어학], [영어학]을 키워드로 검색하니 다양한 강의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충남대학교 영어학개론 이려닝콘텐츠]** 강의 자료가 상당히 유용했다. 학기 초반부에는 [국제정치론]과 더불어 동영상강의를 시청할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빠듯하여 교양강좌임을 감안하여 강의 자료만 훑어보기로 결정했다. 학교 수업에서 얻을 수 없었던, 상세하고 자세한 설명이 기술된 자료 덕분에 학기가 끝날 때까지 수월하게 수업에 임하게 되었다.

KOCW 추천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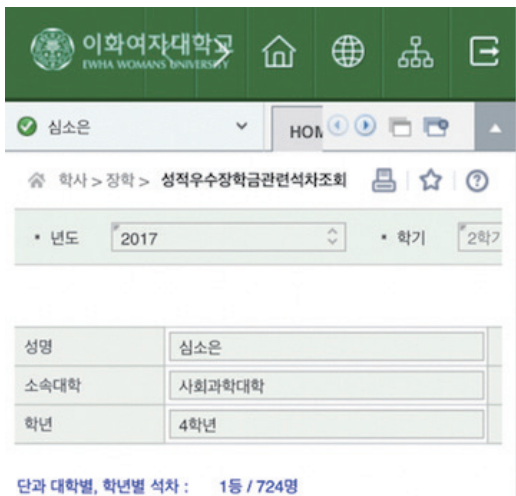


3. KOCW의 활용효과 및 성취도

활용의 효과는 상당했다. 앞서 동기부분에서 필자의 학점을 기술했던 것은 그 효과를 두드러지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인데, 아래 첨부한 사진과 같이 이 웹사이트를 이용한 학기의 성적은 상당히 향상했고 [4.14/4.3]으로 16년도 2학기를 마무리 하게 되었다. 그토록 걱정했던 전공수업 역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깊게 공부한 덕에 이후로도 그 때 배운 개념과 이론들을 잘 활용하였다. 더 나아가 향상된 성적으로 전과신청에 성공하여 현재 필자는 정치외교학과 학생이 되었다.

KOCW는 학생들이 잘 활용만 한다면 그 가치는 무한대로 뻗어나간다. 필자의 경우는 여러 강의를 두루 살펴보면서 필요한 부분의 내용을 반복학습하며 이용했고, 그 결과 추가적으로 복습하고 몰입해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장기기억에 저장되어 시험기간에 상당히 수월하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다. 또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필자가 [The story of Human Language] 강의를 수강했을 때처럼, 강의 자료만이라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필자는 이후 졸업 학기까지 듣는 강의마다 난관에 부딪힐 때 KOCW를 충분히 활용하였다. 시간에 쫓길 때에는 학습 자료를 다운받아 학교 교수님이 설명해주시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여 새로 정리노트를 만들기도 하였고, KOCW에서도 찾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Youtube에 올라와있는 자료들까지 찾아 어려운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해냈다. 그 결과 학교수업 그 자체가 두려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또 다른 교수님이 내 공부를 도와주는 기분이었고, 마치 교수님에게 개인과외를 받는 기분이었다. 또 추가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공부하면서 질문거리도 생겨 상당히 심도 깊은 공부를 이어나갔다. 그 결과 졸업 학기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몰랐던 내가, 스스로 공부 양을 늘리고, 보충하면서 나만의 학습 방법을 찾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 학사 > 성적 > 개인성적조회

📄 ★ 🔍

성명	심소은	입학구분	신입학	입학일	2014/03/01
소속대학	사회과학대학	학부/학과	사회과학부	전공	정치외교학
학년	4학년	이수학기	8학기	학생상태	재학

년도/학기: 전체 정렬순서: 1.학기/학수번호순 총건수: 49건

순번	년도	학기	학수번호	교과목명	교과목구분	시간	학점	성적	재수강년도/학기	포기신청
21	2016	2학기 특별시험	10707	영어인증시험	교양	0.0	3.0	S		
22	2016	2학기	10023	기록교와세계	교양	3.0	3.0	A-		
23	2016	2학기	10545	근대일본과동아시아	교양	3.0	3.0	A		
24	2016	2학기	11094	고전읽기와글쓰기	교양	3.0	2.0	A+		
25	2016	2학기	11160	정보기술과미래사회	교양	3.0	3.0	A+		
26	2016	2학기	11183	The Story of Human Language	교양	3.0	3.0	A+		
27	2016	2학기	22164	국제정치이론	전공선택	3.0	3.0	A+		
28	2016	겨울학기1차	22183	정치학개론	전공선택	3.0	3.0	A-		
29	2017	1학기	22178	외교정책분석	전공선택	3.0	3.0	A+		
30	2017	1학기	22181	국제정치경제	전공선택	3.0	3.0	A+		

4.제언

대학 공부의 8할은 KOCW의 도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애정이 큰 만큼 아쉬운 점도 더러 있어 몇 가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항들을 기술한다.

첫 번째, 강좌들이 올라와있지만 강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는 물론 많은 강의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이기에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점이지만 개선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두 번째, 모바일활용이 용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는 주로 학교 도서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강의를 수강했는데, 모바일로 학습 자료와 동영상강의에 접근이 쉬워진다면 좋겠다. 현재 KOCW앱은 웹만큼 잘 작동하지 않고 여러 오류들이 발생하여 그 점이 다소 아쉽다.

5. 마무리하며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지 않아도 이처럼 원하는 내용을 손쉽게 학습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은 정말 혁명적인 일이다. 학교 수업을 더 심도 깊게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도서관에서 보충자료를 얻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KOCW에 올라와있는 많은 교수님들의 자료들도 함께 두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나의 사안과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관점을 비교하는 기회가 되고, 누적되는 반복학습으로 자동으로 시험대비가 된다는 큰 장점이 있다. 학기 시작만 되면 여러 강좌들의 강의계획안을 보며 “어려울 것 같아 이 수업은 듣지 못하겠다.” 며 도망치던 것이 었고제 같은데, 이제는 그 어떤 강의들도 KOCW를 수업 친구로 두고 있으면 두렵지 않게 되었다. 더 나아가 좋아하는 공부를 국내 유명교수님들의 강의와 함께 두루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며 누리는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된다. 좋은 시대에 태어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곁을 함께하는 동행자, KOCW

수학을 포기한 사람, 일명 수포자. 제가 바로 그 수포자입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 수포자가 선택하듯, 인문계를 선택한 이유가 수학을 무서워하고 싫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 앞서 수강했던 필수과목인 경제 수학에서는 거의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 정말 나는 숫자와 관련된 건 하지 말아야 하나'하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제통계학을 수강할 때, B₀학점만 받아도 좋겠다고 생각하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학기는 유독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휴학을 오랫동안 하다가 복학을 한 상태였는데, 그전부터 준비했던 공무원 시험 생활을 계속 해야 했고, 복수 전공인 경제학과에서 이수해야 할 학점이 많이 남아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시험에 투자할 시간도 바듯했는데, 학교 공부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경제통계학 첫 시간에, 담당 교수님이신 강기춘 교수님께서 학습 보조 자료로 KOCW 강의를 같이 듣기를 권하셨습니다. KOCW에서 제공하는 강기춘 교수님의 경제통계학을 듣기 시작하면서 KOCW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 kocw 인기 강의!

처음에는 복습 자료로만 활용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통계학에 대해 전혀 알고 있는 지식이 없다보니 복습만으로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수업이 있기 전에 1배속으로 1번 들었습니다. 수업에서 배울 전체적인 학습 내용을 그렸습니다. 그런 뒤, 같은 동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이 때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체크하고, 최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수업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KOCW에서 제공하는 경제통계학 강의의 경우, 길어봐야 20분 내외라 2번 들어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예습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강의안에 메모를 하고 수업에 임했습니다. 실제 수업에 들어가면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는 예습할 때 이해가 안 돼서 체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거기다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을 더해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듣고 나면, 저녁에 복습을 했습니다. 우선, 예습하면서 했던 메모와 수업시간에 썼던 필기를 간단히 훑어봤습니다. 그런 뒤, 강의의 주교재인 통계학 교과서를 폈습니다. 그 날 배운 부분까지 읽으면서 개념을 한 번 더 다졌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의 예제를 다 풀었습니다. 공부했던 개념들을 문제에

적용했습니다.

주중을 학교 수업과 수험으로 보내고 나면, 주말에는 주중에 공부했던 것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면 체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중에 했던 강도로는 도저히 공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생각했던 방법이, KOCW 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게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였기에, 2배속으로 두 번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개념을 다시 상기시키는 용도로, 나머지 한 번은 멈춤 버튼을 눌러가면서 개념이 잘 잡혀 있는지 흰 종이에 써보고 확인하면서 복습했습니다. 길어야 20분에서 40분 정도의 시간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일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은 수업에 사용하는 교과서를 읽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KOCW 강의와 수업은 교수님께서 제공하는 강의안을 공부하는 터라, 처음에만 약간 힘들 뿐 점점 공부할 양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KOCW에서 제공하는 강의는 앞서 언급했듯이 20분 내외의 분량이라 집중해서 보기 편했고 반복해서 보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반면, 기본서는 예제를 곁들여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글이 많고 분량이 많았습니다. KOCW 강의를 활용한 시간을 따져보면, 총 4번을 봤다고 해도 최대 2시간을 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교과서를 읽는데 투자한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교과서를 수업 전에 먼저 읽고 KOCW 강의를 복습자료로만 활용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교과서를 읽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4시간 내지 5시간이 걸려 도저히 수험생활과 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일단 KOCW 강의를 진도에 맞춰서 2번 보고, 학교 수업을 듣고, 그 날 복습으로 교과서를 2번 읽는 것이었습니다. 교과서를 읽을 때면, 기본 개념이 이미 눈에 익은 터라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KOCW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시간을 줄이고 공부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말에 KOCW 경제통계학 강의를 2배속으로 복습했습니다. 이렇게 복습까지 하고 일주일을 보내면, KOCW에서 제공하는 강의 4번, 수업 1번, 수업에서 사용하는 기본서 교재 2번, 이렇게 7번을 읽게 되는데, 이쯤 되면 기본 개념들을 자기의 언어로 익힌 상태가 됩니다.

KOCW를 활용한 경제통계학 공부 과정

과정 01	과정 02	과정 03	과정 04	과정 05
수업 전	수업	수업이 있는 날	주말	시험 기간
2번 강의 수강 총 약 40분 정도 1번: 전체적인 학습 내용 이해 2번: 기본적인 개념 이해	수업 전에 예습 시 이해가치 않았던 부분 집중해서 듣기 교수님이 중점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 표시 동영상 강의와의 차이 메모	메모한 부분 중점적으로 보기 기본서 2번 읽기 1번: 기본 개념 체크 2번: 예제 이용 계산 연습 및 개념 심화이해	동영상 강의로 복습 1번: 2배속으로 빠르게 복습 2번: 기본 개념 읽기 및 읽기 확인	예제와 연습문제 레포트 위주 읽기 & 계산 연습 KOCW강의는 복습용으로 2배속으로 빠르게 수강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던 건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학교 시험 기간과 공무원 시험 기간이 겹쳐, 학교 시험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은 교과서를 다시 한 번 더 보는 게 아니라 KOCW강의를 2배속으로 빠르게 훑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평소에 풀었던 예제와 교수님께서 내주신 문제를 계속 푸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문제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과 학습 내용을 대략이라도 훑지 않으면 문제를 풀다가 막힐 때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이기도 많고 대학 과정이 7학기 짜인데, 그렇게 성적 발표 날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A_0 를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 1등만 A^+ 를 주신다고 했으니 제 등수는 알지는 못했지만 반에서 15% 안에 들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수험 생활과 병행하지 않았다면 좀 더 정성들여서 공부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KOCW가 있어서 없는 시간을 그나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고 내가 선택한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 받은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물론 교과서만 여러 번 읽는 방법으로 공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KOCW를 활용했던 이유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교과서만 읽었다면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이 좀 더 걸렸을 겁니다. KOCW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일단 몰라도 눈과 귀에 익도록 했습니다. 차츰 수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문제가 하나씩 풀리면서 처음 자포자기했던 심정들이 '어, 할 만한데?'로 변했습니다. 요즘에는 통계학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KOCW에서 계량경제학을 듣고 있고, 앞으로 여러 통계학 강의를 위주로 학습할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한때, 대학에 들어와서 좋은 점을 '수학을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은 답을 틀리는 것도 기분이 나쁘게 모르는 문제를 놓고 '머리가 나빠서', 혹은 '게을러서'라는 비난을 스스로에게 하며 앉아 있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공포였습니다. 이후 운이 좋게도 통계학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터라 졸업을 위해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수학은 다시 부딪쳐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보고 '원래 나랑 수량은 안 맞아. 했던 것만 하자'며 다신 얼씬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수월하고 쉽게 익힐 수 있는 학습도구가 있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학습 도구가 있다는 것은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곁을 함께하는 동행자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수학에 대한 막막한 마음을 없앤다는 작은 것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고 전문가가 되겠다는 것까지, 그 목적지가 무엇이든 그 동행자와 함께 계속 도전한다면 그곳에 닿지 않을까요?

KOCW를 소개해주시고 경제통계학을 가르쳐주신 강기춘 교수님, 동영상 재생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의 글을 올리면 바로 답변을 해주시고 해결해주시던 KOCW 운영자님, 그리고 이런 좋은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 KOCW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경제통계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고 KOCW 수강을 독려해주신 강기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지식을 넘어서게 하는 나의 조력자, KOCW

저는 중국에서 중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 연구생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매우 잘 모르는 학생입니다. 격식이 얼마나 많은지 문서 작성이 어려워서 학회지 논문 투고도 망설이게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부끄럽지만 요즘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법한 워드나 한글 관련 자격증도 하나 없고, 글로 연구 성과를 내야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종이와 펜 하나 달랑 들고서 있는 현대 문명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문맹' 가까운 학생입니다. 그것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말이죠.

그러나 저의 전공이 중문학이니 컴퓨터와 큰 연관이 없음을 다행으로 여기며 중국어와 세부 전공 지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운명적으로 '실험 언어학'의 길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실험 언어학, 말 그대로 언어를 재료 삼아 실험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대략 36명 정도의 피실험자의 음성을 채취해서 표본을 만들고 대조군과 비교를 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언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음성을 채취하여 분석을 해야합니다. 90년대에는 대학에서 엄청난 비용으로 음성 분석 기계를 구매하여 음성을 분석하였다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그것도 무료로 프랏(Praat)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모든 개인이 음성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문맹' 인 저는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혼자서 독학에 들어갔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든 분이 친절하게 '프로그램 가이드' 까지 다운 받을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지만, 문제는 클릭 몇 번으로만 이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 접하는 생소한 이 프로그램의 설명서를 읽어서 음성을 분석해야한다는 것이 너무나 무모하게 느껴졌고, 적어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었습니다. 주변에 도움 받을 사람이 없나 찾아보다 중국인 선배님께 부탁하여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기로 하였지만 중국어로 배우는 전문 용어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또한 한 번 시연해주며 "자, 이제 할 수 있지? 간단해" 라고 말하는 분께 같은 내용을 네 번, 다섯 번까지 차마 다시 물어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바보인가봐...' 라는 자괴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느끼던 중에 우연히도 KOCW강의를 검색하게 되고, **영남대학교 윤규철 교수님의 <프라트 기초 : 음성 분석과 합성 전문 프로그램>** 강의와 **<프라트를 이용한 음성학 기초>**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 강의들은 정말 형용할 표현이 없을 정도로 매우 확실한 도움이었습니다. 인터넷 강의다 보니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초보자를 대상으로 기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다는 것. 아마도 인터넷 프랏 강의는 대한민국 최초가 아닌가

→ KOCW 인기 강의!



싶습니다.(물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어서 그 학교 학생이 아니면 전혀 들을 수 없는 이 강의를 제가 들을 수 있게 한 이 시대와 기술에 감사했으며 공개된 지식에 감격했습니다. 그렇게 프랏을 익혀서 음성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KOCW 인기 강의!

이렇게만 순조롭게 끝이 났다면 저는 이 글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표본과 대조군을 비교할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통계'의 산과 조우하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통계란 학부 때 수강했던 엑셀을 이용한 기초 통계가 전부인데 이를 어쩌나, 라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SPSS보다 더 유연하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R언어의 힘은 무척이나 대단해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책을 2권을 구매하여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기초는 이해했지만, 사실 제가 필요한 통계는 기초를 넘어서서 중급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 때 혹시나 해서 KOCW에서 검색을 해 본 결과, 서울시립대 전종준 교수님의 <프로그래밍 언어 및 실습>이라는 강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R언어의 기초는 물론, 실습까지 할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사실 R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해야 하는데 저 같은 '문맹'에게 프로그래밍 언어는 정말 넘기 어려운 산이었습니다.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았지요. 실례를 무릅쓰고 수업 때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전종준 교수님께 메일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답장이 올 거라는 기대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수님의 답신을 받고 눈물이 찼습니다. 그것은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마치 교수님께 지지와 응원을 받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쩌면 본인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저에게 보여주신 학문에 대한 열정과 강의에 대한 책임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부족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강의들을 통해서 R언어의 모든 내용을 마스터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혼자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토론할 수 있으며, 적어도 제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알고 질문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는 대단한 발전입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통계와 각종 도표라는 산을 R언어를 통해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중문학 전공자이며 언어학과 언어습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루게 될 지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같은 완벽한 문과 학생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해야하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여 그에 맞춰 새로운 도구들이 배움을 돕는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공개된 지식은 순수학문 뿐만 아니라 교차 학문의 길 가운데서 지식의 연합을 시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동력으로서 그 가치를 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자신을 향한 무지함에 대한 무거운 감정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절실한 때에 KOCW에서 받은 도움이 커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공개된 지식이 주는 영향력과 그 확장성은 폭발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한 지식의 부를 나눠서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개된 지식의 힘은, 분열된 의견을 다시 아우르게 하는 깊고 넓은 사상을 만들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포용에 기여하는 가장 필요하고 가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며, 저 또한 지식의 나눔을 실천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린 지식에 감사합니다.



KOCW, 가난한 공대생의 엔진이 되어준다

1. 로망을 꿈꾸는 복학생,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2016년 7월 15일, 나는 오지 않을 것 같던 전역을 하게 되었다. 21개월의 시간을 보낸 뒤 가벼운 마음으로 했던 무거운 다짐은 누구나 인정할만한 높은 학점을 받는 것이었다. 흔히 말하는 복학의 힘으로 높은 학점을 받는 것은 군필자들의 로망이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와 나를 괴롭히는 현실이 있었다. 그것은 쉽게 말해 우리 집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대하기 전에도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학자금 대출은 기본이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적응되어 나는 말년휴가를 나와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모아 복학을 준비했다. 흔한 군필자가 꿈꾸는 그 로망을 생각하며..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집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전세금이 수천만 원 가량 오르면서 이사를 해야 했고, 심지어 부모님께서 전세대출 불가 판정을 받게 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이 때, 나는 차악의 수를 생각해냈다. 그것은 휴학하여 직장을 구해 내 명의의 대출을 받는 것이었다. 나는 복학을 미루고 휴학을 통해 학원 강사로 취업했고 3개월의 원천 징수가 인정이 되면서 부랴부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학업과 점점 멀어지는 듯 했다.

2. 비장한 마음으로 복학, 결과는....?

2017년 7월이 되면서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 바로 복학이었다. 학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결국, 나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동안 온갖 수난을 겪으며 마음을 다잡고 과감하게 정면 돌파를 하여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학업에 전념하는 대학생으로, 금요일과 주말은 수학 선생님이로 이를 악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열람실에서 악착같이 살았다. 그렇게 죽을 듯이 2017년 2학기를 보낸 나에게 주어진 성적표는 너무나 비참했다.

사실 분명한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일로 인해 주말이 제한된다는 점, 또 인천과 수원이라는 장거리를 통학하면서 잉여시간이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또 3년이라는 공백으로 인해 전공과목의 이해도가 부족해 따라가기 급급했고 결국



다수의 전공을 모두 챙기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내게 필요했던 건 효율적인 시간 관리였는데 그것을 실패하고 만 것이다. 이렇게 내가 전역하고 꿈꾸었던 로망은 나에게서 멀어지는 듯 했다.

2018년이 되면서 나는 노트북을 켜고 높은 학점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수기를 보다가 예습이라는 키워드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확실히 예습을 하게 되면 학기 중에 수월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지만 수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공과목을 홀로 독학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인터넷 강의나 전문 학원 역시 부담스러운 가격 때문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당연히 무료인강은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다 벼랑 끝에서 우연히 보게 된 것이 바로 KOCW(Korea OpenCourseWare)였다.

3. KOCW, 가난한 공대생의 엔진이 되어준다.

현직 대학교 교수님들의 강의를 다양하게, 그것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점은 나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전국 여러 대학의 강의를 있어 나에게 맞춤 강의를 찾기가 수월하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나는 차근차근 나와 맞는 강의를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세종대학교 객관웅 교수님의 <동역학>과 <기계진동학>**을 수강하기로 마음먹었고 이 결정은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지 않을 결정 중 하나임을 확신한다.

kocw 인기 강의!!

사실 강의력은 어느 대학교수님이나 훌륭하지만 객관웅 교수님만의 독특한 매력은 실제 강의를 듣는 느낌이 최적화되었다는 것이다. 수업 중간에 수강생들에게 핵심 질문을 하는데 영상을 보면서 내가 대답하지 못하면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걸 인지하고 재수강하여 이해했다. 또한 가끔 재미있는 이야기는 물론 실생활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전공과목이 졸업 후 어떻게 사용되는지 세세히 언급하면서 흥미도 유발시켰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객관웅 교수님 수업은 저작권 문제로 강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나만의 필기노트를 만들어 수업자료의 핵심 내용을 옮겨 적으며 아쉬운 점을 보완해 나갔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방학동안 두 개의 강의를 완강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2018년 1학기를 맞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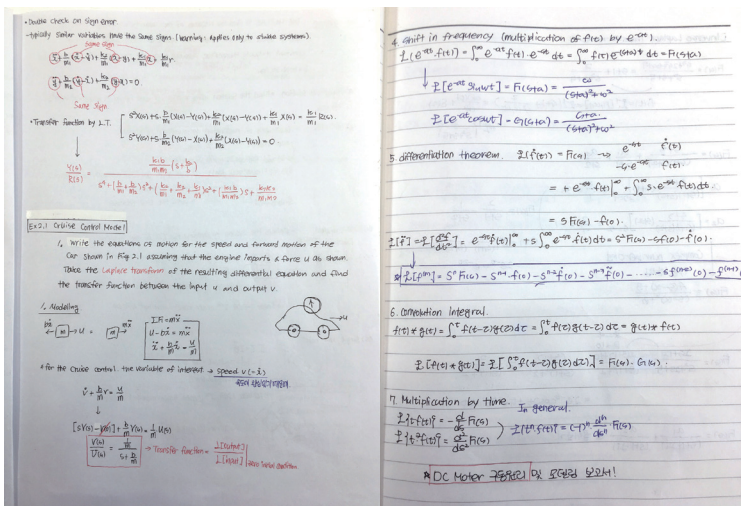
시작부터 달랐다. 학기 초에 배우는 기초 지식은 너무나 쉽게 이해되고 오히려 평소 수업시간에는 관심조차 없던 응용 문제까지 풀 수 있었다. 게다가 동역학과 접목되는 다른 전공 분야에서도 수월한 수업을 듣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 학기 중에는 KOCW 덕분에 객관웅 교수님의 같은 과목을 다른 강의로 들 수 있었는데 매년 강의를 업데이트해서 올려주기 때문이다. 강의자료 역시 매년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수업을 다른 느낌에서 들 수 있었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했다.

믿을 수 없었다. 항상 중간등수도 급급했던 내가 처음으로 전공과목인 기계진동학에서 만점을 받게 된 것이었다. 1등을 한 것이다. 게다가 동역학 과목 역시 상위권에 오르며 A학점의 기대를 살렸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복학을 앞뒀던 예전의 나의 로망이 떠올랐다. 멀어진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있었다. 그 날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렇게 1학기가 마무리되었고 결과는 아쉽게 다른 전공과목에서 컨디션 조절 실패로 목표학점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분명히 성과는 있었다. KOCW를 통해 수강한 과목들은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 나의 로망은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순번	교과목	이수구분	학점	점수	평점	등급
1	ME27101 동역학	04 전공필수	3		4	A0
2	ME37102 기계진동	05 전공선택	3		4.3	A+

[그림 1] 수강 강의 성적 인증



[그림 2] 나만의 수강 강의 노트

4. 후기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먼저 객관용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사정과 별개로 전공과목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객관용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면서 동·제어 공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학점을 넘어서 저의 방향을 잡아주었고 더불어 과목명과 어울리게 저에게 날개보다는 엔진을 달아주었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비록 타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있지만 후에 동역학을 어디서 배웠냐고 묻는다면 고민 없이 객관용 교수님을 언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KOCW에게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시간을 극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뒤에 3학년 2학기를 맞이합니다. 다음 학기에도 KOCW, 잘 부탁드립니다!



KOCW로 1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어촌전형으로 서울에 올라온 지방 출신 공대생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곳은 거의 시골이었고 저만의 공부 방식은 오로지 혼자 공부하며 학교 수업에 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정시나 일반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보다 실력도 한참 부족했고 가진 것은 오로지 열정뿐이었습니다. 1학년 때는 잘하는 친구들 옆에 빌붙어 모르는 것을 물어보며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참 불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했음에도 동기들과의 실력 격차가 컸기 때문에 1학년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심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친구들을 꺾고 학점 4.5만점으로 1등을 성취해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학년 1학기는 군대를 전역하고 맞이한 첫 학기였습니다. 2년 동안 부족한 실력과 함께 공부하지 않은 머리는 수업을 따라가기 너무 버거웠습니다. 옆친 데 댈친 격으로 어머니께서 큰 사고를 당하시는 바람에 집안 걱정으로 학업에 온전히 집중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수술비로 집안이 힘들어졌기에 성적 장학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 성적을 잘 받아서 힘든 상황에 계신 부모님을 웃게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1목표가 되어 뒤돌아보지 않고 모든 걸 공부에 쏟았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고 그때 운명처럼 대학 강의 KOCW를 알게 되었습니다.

→ KOCW 인기 강의!

제가 KOCW에서 처음으로 들었던 강의는 **부산대학교 이상순 교수님의 <동역학>**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끊임 없이 질문하며 강의를 하셨고 무엇보다 놀랐던 것은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가 아닌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과 그 이름을 부르고 질문을 하시며 수업을 하시는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동영상 강의 속 교수님의 질문이었지만 그 '질문'들은 가볍지 않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강의 자료를 내려 받아 열심히 필기하고 복습하며 공부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이상순 교수님의 강의를 두 세 번씩 돌려보며 이해를 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저는 KOCW의 강의에 믿음이 생겼고 동역학에서 더 나아가 **안득만 교수님의 고체역학**, **박상희 교수님의 열역학**, **조세형 교수님의 C언어**, **김동호 교수님의 공업수학**까지 전공수업 전부를 KOCW의 도움을 받으며 공부했습니다.

열역학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기에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주 버거운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들어가는 만큼 나오는 게 있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일깨워주셨고 그 원칙을 통해 어려운 식들을 가볍게 풀어주시며 세세한 부분까지 이해를 시켜주셨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풀어주시는 교수님 덕분에 저는 사고의 폭을 훨씬 넓힐 수 있었습니다. 색다른 공부는 저에게 딱딱했던 전공 공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열역학이라는 과목이 사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그만큼 다른 친구들도 어려워하는 과목이었습니다. 때문에 교수님께 배운 공부가 저에게 큰 무기가 되어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월등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동호 교수님의 강의는 교재까지 구매하며 적극적으로 들었습니다. 김동호 교수님께서서는 예제를 풀어주시고 어려웠던 증명들을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다가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컴퓨터 응용수업에서의 C언어는 처음 접해보는 코딩인데다가 학교수업이 조교가 가르치는 방식이기에 깊이 있는 배움을 얻기 힘들었고 이해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김동호 교수님은 보기 좋은 이미지까지 사용하는 예시로 수업에 재미를 더해주셨고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코딩은 그저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했던 저에게 새로운 코딩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학교 수업에서도 남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었고 심지어 옆자리 친구들에게 특별강의 까지 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안득만 교수님은 KOCW내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으셨는데 강의를 듣다보면 그 인기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어려운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셨고 문제를 푸는 많은 방법 중 가장 쉬운 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대학교에서는 간단하고 쉽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그냥 넘기시는 교수님들이 많았는데 안득만 교수님께서서는 아무리 쉬운 부분이라도 다시 한 번 되짚어볼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고체역학이라는 학문이 정역학에서 더 나아간 그저 어려운 과목이고 암기과목이라고 생각했지만, 안득만 교수님께서 고체역학은 암기나 딱딱한 전공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현상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과목명	학점	등급	평점	담당교수
일반과거과목	2	A+	4.5	김예리
고체역학(1)	3	A+	4.5	조성욱
컴퓨터활용(1)	3	A+	4.5	김철호
열역학	3	A+	4.5	구승범
열역학(1)	3	A+	4.5	이상원
컴퓨터응용	2	A+	4.5	최영기



이렇게 뛰어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얻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공부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의 '깨달음'을 얻을 때면 행복한 마음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잊고 지냈던 공부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며 공부했고, 어느 샌가 배우는 입장에서 친구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에 대한 자신감도 넘쳐났습니다. 오히려 빨리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마저 있었습니다. 사실 학기 초에는 학업을 따라가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기에 중간이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지만 KOCW를 통해 공부하고 나서는 전액 장학금을 목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적표가 나온 날 저는 가장 먼저 부모님께 달려가 보여드렸고, 진심으로 좋아해 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은 그 어떤 보상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값졌습니다.

이번 학기를 통한 저의 공부 비법은 KOCW와 A4용지가 되었습니다. A4용지로 강의 자료를 받고 또 A4용지에 필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부법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 하고 있습니다. 저는 KOCW를 통해 이런 학점을 받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1학기동안 KOCW에서 받은 강의 자료와 동영상강의를 들으며 제가 필기한 자료를 뒤 돌아보면 이 많은 양을 어떻게 공부했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무엇보다 뿌듯하고 소중한 자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부 1등의 준비물은 개인의 노력, 절실함과 더불어 KOCW의 교수님들의 뛰어난 명 강의입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 어떤 비싼 인터넷 강의보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절대 뒤지지 않는 실력파 교수님들의 강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큰 사고와 부족한 실력들이 저를 초기에 힘들게 했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을 배웠으며 "하면 된다."라는 저만의 인생의 진리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큰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그 고통을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맞았으며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학기가 시작된 지금도 친구들은 학교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다며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저는 KOCW가 있기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KOCW를 통해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KOCW를 활용한 대학원 스터디 모임의 학습능력 향상 사례

1. 스터디 모임 소개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학우님들과 스터디 모임을 시작한 것은 2018년 4월부터입니다. 경제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한 우철호 학우님이 저에게 파이썬 프로그래밍 방법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시작하였던 세미나가 현재의 스터디 모임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스터디 모임의 구성원은 박사과정 한 명과 석사과정 및 수료생 네 명이 있습니다.

스터디 모임의 기본 목표는 전공과목 학습과 연구분석기법 이해를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본 목표가 포괄적인 이유는 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세부전공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각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의 내용을 최대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부주제를 특정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터디 모임에서 각 구성원들은 자신이 학습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해당 분야의 스터디를 주도합니다. 스터디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교재와 보조 자료를 수집하고 자율학습을 수행한 뒤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학습한 내용을 다른 구성원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스터디 모임의 진행 중에는 질문과 답변을 최대한 독려하고 있습니다. 가령, 스터디를 진행하는 중에 발표자의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발표자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리고 어떤 방법으로 다시 설명해야 더 나은 정보전달이 가능할지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 과정은 스터디 모임을 다소 늘여지게 만들지만, 스터디 참여자들에게 강도의 방법을 인지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설명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2. KOCW 공개강의를 스터디 모임에서 활용한 사례

이번 2018년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스터디 모임에서 게임이론과 수리통계학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 중 수리통계학은 경제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세연 학우님이 선택한 분야입니다. 박세연 학우님은 계량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연구분석기법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한 선행학습과목으로 수리통계학의 학습을 선택하였습니다.



수리통계학은 통계학에서 다루는 개념을 수리적으로 엄밀하게 표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량경제학에서 제시하는 연구분석방법을 충실하게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리통계학의 학습이 권장됩니다. 저는 수리통계학 학습을 위한 교재로 Hogg, McKean, Craig가 저술한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statistics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세연 학우님은 수리통계학 스터디 준비에 생각보다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스터디에서 다룰 교재의 내용이 방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은 대학미적분 수준에서 통계학에서 다루는 내용을 수리적으로 설명하며, 확률과 분포, 통계적 추론, 기타 세부적인 통계학의 개념들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 다양해서 수리통계학을 처음 학습하는 경우에는, 박세연 학우님과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에 저와 박세연 학우님은 수리통계학 스터디를 준비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보조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 KOCW에서 **부산대학교 김충락 교수님의 수리통계학 I, 수리통계학 II** 공개강의를 발견하였습니다.

 KOCW 인기 강의!

김충락 교수님의 공개강의 영상은 참으로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습니다. 공개강의 영상에서, 강의는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statistics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강의 영상에서 수리통계학의 정의와 증명과정을 칠판에 직접 판서하고 영어로 설명하는 순서를 반복합니다. 이를 통해 청자는 통계학에서 제시하는 수리적인 개념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받습니다. 교수님의 판서 장면은 카메라가 능동적이고 부드럽게 따라가며 촬영되어 실제 강의실에 있는 것과 같은 편안한 느낌으로 강의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KOCW 사이트에서 김충락 교수님의 강의노트를 충실하게 제공해주어서 스터디 구성에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박세연 학우님에게 KOCW에서 제공하는 김충락 교수님의 수리통계학 I, 수리통계학 II 공개강의를 참고 자료로 추천해주었습니다. 스터디 진행과 관련해서는, 이번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김충락 교수님의 공개강의 진도 전부를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수리통계학 I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까지를 중점적으로 학습할 것을 조언해주었습니다. 이에 박세연 학우님은 수리통계학 I 공개강의와 강의자료를 학습하였으며, 그 후에는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statistics 교재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전보다 자신감 있는 태도로 스터디 모임을 준비하고 학습내용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스터디 모임에서 수리통계학을 학습한 박세연 학우님은, 계량경제학에서 제시하는 연구분석기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스터디 모임에서 KOCW 공개강의 이용에 따르는 장점

스터디 모임에서 학습을 진행할 때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은, 학습 내용을 잘 아는 구성원이 없는 경우입니다. 시간적인 제약 하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을 학습하고 다른 스터디 구성원들에게 학습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난관의 연속입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정리되었다고 생각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면, 정보전달이 전혀 명확하지 않고 혼란스럽게 나열되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KOCW에서 제공하는 공개강의는 스터디 모임에서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KOCW 공개강의를 학습한 후에 스터디를 준비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스터디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감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이에 스터디를 준비자와 구성원 모두의 학습효율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4. KOCW 공개강의와 함께 꾸려가는 스터디 모임

경북대 대학원 경제학과 스터디 모임을 처음 진행할 때에는 구성원들의 열정만으로 학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학습내용을 선정하는 것부터, 학습 자료 수집, 자율학습과 학습 내용의 정리,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스터디 구성원들의 책임감과 의지가 없었다면 스터디 모임은 애초에 운영이 중단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스터디 모임을 이어나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KOCW 공개강의를 활용했던 경험은 스터디 진행 노하우의 가장 큰 성과라 생각합니다. KOCW 공개강의를 학습하고 스터디를 진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짧은 시간 안에 학습을 목표로 하는 분야의 맥락을 찾아내고 다른 참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스터디 모임은 KOCW 공개강의 활용을 포함한 스터디 진행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이용하여 구성원들의 효율적인 학습을 도울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처음으로 스터디 모임을 진행할 때에 부실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발표 내용에 집중을 해준 우철오 학우님, 수리통계학 스터디를 매 주마다 열성적으로 진행해 준 박세연 학우님, 미시계량분석에 관심을 가지며 긴 학습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스터디에 참여해준 장유정 학우님 그리고 스터디 때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준 허재원 학우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의 꿈에 날개를 달아준 KOCW

1. 나의 꿈에 날개를 달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준비생 시절 KOCW를 이용하며 임용고시를 준비하였고, 현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화학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장지수입니다. 사범대학을 갓 졸업했던 저는 화학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전공화학, 교육학 등을 공부하여 교원임용고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를 이미 졸업한 저에게 교수자 없이 어려운 전공화학을 다시 혼자 학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생님이 되기 위하여 노량진의 학원을 다녔던 아이러니한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취업준비생이었던 저는 한 강좌 당 가격이 수십만 원에 달하여 금전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고, 원하는 강의를 계속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KOCW에서 '분석화학', '기기분석1'이라는 강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로 대학 교수님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았고 교수님의 강의 또한 흥미롭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KOCW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통해 교원임용고사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간 꾸준히 전문성을 신장시켜 온 결과 저는 교원임용고사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2. 왜 KOCW인가?

제가 KOCW를 들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은 전문성이었습니다. 제가 수강했던 '기기분석1' 과목은 국내에 전문가가 거의 없어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설령 강의를 찾더라도 대부분의 강사는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의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혼자 공부했을 때에도 '전압전류법', '전류법' 등 기기분석법의 특징과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KOCW를 통해 '기기분석1' 강좌를 접하면서 해당 학문의 전문가이신 윤태현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며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전류법'을 설명하시면서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을 때,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며 혈당 측정에 사용된다고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전압전류법'을 설명하실 때는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듯 전공책의 설명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이 더해지니 혼자서도 충실하게 공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현장에 있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쉽게 설명해 주셨고, 강의를 듣는 판서 또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기초 강좌부터 심화 강좌까지 차근차근 수강하면서 전공 지식을 단권화한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 나갔고, 전공 지식을 재구성하여 내면화해 갔습니다.

KOCW의 두 번째 장점은 접근성이었습니다. KOCW의 강좌는 모바일 앱과 유튜브 등을 연계하여 쉽고 빠르게 강의를 들 수 있었습니다. 다시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청강을 하지 않아도 실제 대학 교수님의 강좌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KOCW 강의는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게 해주었습니다. 전국 어느 대학의 강좌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수강할 수 있었고 모바일 강의실에 접속하면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을 강의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강의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시간의 제약 또한 뛰어넘게 해주었습니다. 강의 시간에 맞추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강의를 학습할 수 있었고, 재생 속도를 조절하여 저만의 학습 속도에 맞추어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KOCW를 들으면서 느꼈던 세 번째 장점은 경제성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분석화학' 강의를 수강했지만 여전히 어려워했던 과목 중에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교원임용고사를 준비하며 '분석화학' 강좌를 찾아보았을 때, 학원의 강좌 수강료는 수십만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고시생 시절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노량진의 학원 강의를 마음껏 들 수 없었습니다. 반면 KOCW의 강좌는 전문적이고 고품질의 강의를 저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대학교를 다니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저의 학습 속도에 맞추어 조절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완전히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전공 화학 지식을 쌓아가면서 공부한 결과, '분석화학' 과목은 저의 약점 과목에서 강점 과목으로 변해갔습니다.

3. 나의 인생에 날개를 달다

'분석화학'과 '기기분석'이라는 과목은 교사가 되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지식이었지만 생소하고 어려운 학문이었습니다. 전공 책을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때, 윤태현 교수님의 '분석화학' 강좌와 '기기분석1' 강좌는 한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KOCW의 강좌들을 들으며 전공 지식을 재구성하고, 나만의 노트로 정리하며 내면화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 년간 꾸준히 전문성을 신장시켜 온 결과 교원임용고사에 합격하며 멋진 선생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KOCW를 몰랐다면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르기에 강의를 제공해주신 교수님과 KOCW에 감사한 마음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교사가 된 지금의 저는 대학원 진학이라는 목표로 다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KOCW 강좌를 통해 더욱 전문적인 강좌를 접하고, 전공 지식을 쌓아 성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KOCW가 더욱 널리 보급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기를 희망합니다.

KOCW 인기 강의!



나의 선배교수, 동료교수 그리고 멘토교수

처음의 선배교수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학의 전임교수로 임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1월 초 어느 날, 실험하던 손에서 장갑을 제대로 벗지도 못한 채 받았던 전화 한 통은 나를 한동안 멍하게 세웠다. 그랬다. 지원했던 대학에서 온 기대치 못한 합격소식은 실험실과 시간강의를 오가며 고생했던 시간들을 한순간에 위로해 주었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교수생활은 매일이 의욕과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대학교수로 임용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새로운 환경과 업무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시간강사 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교과목들을 준비하는 과정은 교수자로서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할 정도였다. 특히 대학교육 특성상 같은 세부전공의 경우 오히려 피해서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도움 받을 곳이 없었다.

그 중에서도 '신경해부학' 과목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물론 학부 때 배웠지만 처음 시도해보는 강의였고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과목이었다. 그때 나를 도와준 손길이 바로 KOCW였다. 사실 처음 KOCW를 알게 된 것은 신입교수들에게 사실상 의무로 주어졌던 KOCW강의공개를 통해서였다. 자세한 사항도 모른 채 수업을 촬영해 올렸는데, 지금도 그때의 영상을 보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그렇게 알게 되었던 KOCW에서 **연세대학교 조상현 교수의 신경해부학강좌**를 알게 되었는데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만 같았다.

→ KOCW 인기 강의!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다면 마치 선배교수님이 후배를 가르치듯 자상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원리를 쉽게 설명해 주셨고 실제 임상사례에서의 예시도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서툴기 그지없던 나의 강의를 KOCW에 공개되었고 그것은 곧 내 강의의 거울이 되어주었다. 서툰 강의의 수업개선 컨설팅트가 되어준 셈이었다. 마치 선배가 조언해 주듯 강의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KOCW는 그렇게 나에게 선배교수가 되어 주었다.

지금의 동료교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편입생들과 학업성취 부진자들은 기초가 부족하여 전공과목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또 4학년이 되면 국가고시를 준비해야 하는데, 해부학을 1학년 때 배웠으니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을 리 만무하다. 그렇다고 1학년들을 가르치면서 편입생, 학업성취 부진자, 4학년 국가고시 준비생들을 일일이 다시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

 KOCW 인기 강의!

그때 또 한 번 나를 도와 준 것이 KOCW였다. 건강대학교 김형태 교수님의 인체해부학 강좌는 사실 그 전부터 이미 인기 강좌였다. 처음부터 천천히 살펴보니 과연 왜 인기강좌인지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주저 없이 단체 SNS에 강좌의 URL을 공유하였고 실제로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매년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니 과목의 주요내용이 더욱 명확해지고 쉽게 이해하는 방법들이 정리되었다. 때마침 플립드러닝을 해부학에 적용하면서 강의동영상을 찍어야 했고 나는 이것들을 잘 정리하여 아예 KOCW 강의공개로 제출하였다. 그러자 이제는 다른 교수가 아닌 내 영상을 학생들이 국가고시에 활용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1학년 때 나에게 배웠으니 아마도 더 잘 내용이 이어진 모양이다. 그렇게 KOCW는 수업과목의 저장 및 공유사이트 역할을 해주었고 지금도 우리학과 학생들 뿐만 아니라 타교 학생들도 많이 칭찬하고 있다. 즉 내가 여러 번 가르쳐야 할 것을 동료처럼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 것이다. KOCW는 그렇게 나에게 동료교수가 되어 주고 있다.

앞으로의 멘토교수

아직 교수생활을 한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경험이 부족한 교수이지만,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이로 인해 우리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생각이 부쩍 늘고 있다. 어디 학생들의 미래뿐이겠는가?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학의 존재는 위태로워지고 교수자가 어느 때 까지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다.

나는 학생들의 미래는 물론, 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읽고 기술적인 학습까지도 준비해야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과거의 방식으로 배우고, 배운 그대로 가르쳐왔던 교수자들이 새로운 세대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쩌면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교수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서 배우야 할까?

나는 이에 대한 답도 KOCW의 방대한 콘텐츠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교수자 개개인이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고 자부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그 이외의 것을 잘 모른다는 반증이다. 각자의 최고 영역을 나누고 있는 이 지식공유의 장에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제2, 제3의 영역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학생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교수자가 아닐까 한다. KOCW는 이를 위한 준비도 모두 되어있다. KOCW는 나에게 새로운



영역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가르치는 콘텐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가르치는 방법이다. 최근 KOCW에 스마트교수법 테마가 생기면서 흥미 있고 다양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수법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나도 내가 잘 사용하는 카훗(Kahoot) 활용법을 정리하여 다른 교수자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공유되는 것이다.

한편 4차산업혁명시대는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만을 잘 안다고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을 이해하는 인문학 등이 그 근본에 자리 잡아야 한다. 나는 앞으로 나에게 부족한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인문학 관련 강좌를 찾아 수강해보려고 한다. 나아가 연구영역에도 이러한 새로운 요소들을 접목시켜보고자 한다.

KOCW는 그렇게 나에게 멘토교수가 되어 줄 것이다.

KOCW, 참 고맙습니다.

RISS & KOCW 우수활용사례집

KOCWC를 활용한
2018년도의 우수 사례
2작품을 소개합니다.

About KOCWC

전문대학을 위한 KOCWC(KOCW College)는
KOCW 강의 콘텐츠를 전문대학 학과과정에 따라
재분류한 맞춤형 전문대학 강의공개서비스입니다.

- ★ 조각으로 분리된 지식으로 직물 짜기 (영진전문대학교, 정혜인)
- ★ 우연히 보게 된 강의 (영진전문대학교, 구상모)



조각으로 분리된 지식으로 직물 짜기

‘나는 이과라 글쓰기에 약해’ ‘문과생이라서 수학을 못 해’

이런 생각은 머리를 굴리기도 전에 문제 앞에서 주춤거리게 한다. 방대한 지식을 난잡한 기준으로 나는 탓에 마치 넘으면 안 될 선인 것 마냥 학문에는 경계가 생겼다. 사실 모든 지식은 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화학을 글로 배워 이해하지 않았는가. 코드를 짜기 전, 순서도를 그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과목에 상관없이 배움의 과정에서 언어적, 예술적 사고를 해야 한 것을 보면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부터 과목과 전공으로 여러 갈래 찢어놓은 지식을 어떻게 엮을 수 있을까? 교수가 제공하는 강의 계획 너머의 지식은 얻을 수 없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도서관 책 안에서, 교수의 말 속에서 헤맸다. 하지만 활자로 가득한 책과 본교에서의 수강신청 할 수 있는 과목의 제한으로 한계를 느꼈다. 그러던 중 발견한 새로운 도구를 소개한다.

KOCWC이다. 대학 공개강의 서비스인 KOCW와 COLLEGE의 첫 글자 C를 합친 단어다. 한국전문대학도서관과 KERIS의 협력을 통해 전문대학에 맞게 재분류한 공개강의 서비스인 만큼 다양한 학과별 자료를 제공한다. 내가 수강했던 과목은 ‘전자회로’, ‘언어학개론’이었다. 인터넷 강의의 강점으로 공간의 제약 없이 집에서든 편하게 듣고, 진도 속도도 오로지 나에게 맞춰 조절할 수 있었다. 과목에 따라 PPT 자료까지 있으니 교재의 부재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컴퓨터에서 작성되는 코드를 흔히 사람의 언어로 비유한다. 대상이 다를 뿐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개념이 처음에 생소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었다. 그래서 ‘언어학개론’을 선택해 강의를 들었다. 전체적인 개론부터 음성학과 음운론까지 다뤘다. 문화에 따른 언어의 차이, 같은 언어일지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전달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언어의 역할을 심층적으로 배우면서 컴퓨터 코드 역시 약속된 부호라는 점에서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였다.

프로그램 작동 원리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해하려니 복잡했다. 책에서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고 사용한 회로들은 더욱 좌절감만 주었다. 간단해 보이는데 글과 그림만으로는 공부하기 어려워 ‘전자회로’ 수업을 들었다. 회로는 말로 기술된 표현을 수식으로 다시 적는 과정에서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법칙들은 우리 실생활 깊숙이 녹아들어 있어서 이름은 물론이고 법칙이라고 인식하기 힘들다고 한다. 이렇게 학교에서 놓쳤던 중요한 개념을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나마 짚고 넘어가니 실감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지난 2년간 법률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한 다짐이 있다. 다시는 아픈 사람들 상대로 일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한 전공이 컴퓨터였다. 사람보다 기계랑 씨름하는 것이 나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웬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컴퓨터보다는 사람에 대해 더 알아야 했다. 하드웨어, 기계, 도구, 사람 / 소프트웨어, 가상, 실제, 사람, 어떻게 시작하든 결국 '사람'이었다. 사람에서 출발하니 공부해야 할 분야가 역사, 문화, 예술, 언어, 정치 등 수없이 뻗어 갔다. 그렇게 해서 느낀 지식의 공백은 학교수업만으로 채울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KOCWC를 알았고 지금의 내 수준으로 온전히 소화하기에 버거울 정도로 양과 질이 좋았다. 계속해서 공개 강의와 우리 학교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형형색색인 지식의 조각들을 모아 오밀조밀 촘촘히 짤 것이다.



우연히 보게 된 강의

얼마 전 주말에 문득 도서관 홈페이지를 보다가 독서의 달 문화행사로 KOCW(전문대학공개강의) 이용수기 공모가 올라온 것을 봤다. 내가 학교에 입학한지도 반년이 지났는데 처음 보는 생소한 이름이라 대체 이건 뭘까? 하는 호기심도 생겼고 평소 상식을 알려주는 강의들을 즐겨보고 좋아하는 나이기에 즉시 로그인을 하고 KOCW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강의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건축과에 재학 중인 나는 건축과 관련된 강의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김석철 교수님의 '건축과 도시와 인문'**이라는 강의를 보게 되었다.

사실 나는 겨우 작년까지는 내가 건축과에 오게 될지 생각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평소에 건축물에 관심도 없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건축에 대한 작은 경험마저도 없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우연히 삼촌의 권유로 건축이라는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고 건축과에 다니게 되었는데 학교에 다닌 지 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돌아켜보면 내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건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끔씩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영진전문대학교에 다니면서 건축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나름대로 알아보면서 건축이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것이 다가 아니라 건물을 공사하기 전, 공사하는 도중, 공사를 끝낸 후에 이르러서까지 아주 많은 요소들이 포함된 복잡한 것이라는 것을 어렵듯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연히 보게 된 KOCW의 강의는 나의 건축에 대한 시각과 견해를 더욱 넓게 만들어주었다.

예전에 책에서 모든 것들은 역사가 있다는 글을 보고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다. 그 말은 대상이 국가나 사람, 또는 물건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건축이라는 것에도 역사가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나는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짧은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그러한 생각들을 해봤던 적이 없었다. 우연히 보게 된 '건축과 도시와 인문'이라는 강의에서는 학교수업에서 듣던 건축에 대한 어떤 기법이나 방식이 아닌 건축의 역사와 각각의 문화권들의 도시마다 품고 있는 의미와 유래들을 알려줬는데 이는 내가 평소에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부분들이라서 짧지 않은 강의 시간 동안 전혀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세상에는 건축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 또 그 분야들마다 아주 긴 역사와 관련된 지식들이 있다.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강의들을 스스로 찾아서

보는 것들이 평소 자신이 전혀 몰랐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시각을 넓혀준다는 것을 이번 KOCW의 강의를 보고 나서 느끼게 되었다. 나는 앞으로도 학교를 다니는 동안 주말이나 쉬는 날에 가끔씩 KOCW의 강의를 볼 계획이다. 평소에 상식을 알려주는 강의를 좋아하는 나에게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이기에 오히려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것에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끝으로 이번 공모전이 나처럼 KOCW에 대해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우연히 알게 되고 또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계기가 되어서 유용하게 사용된다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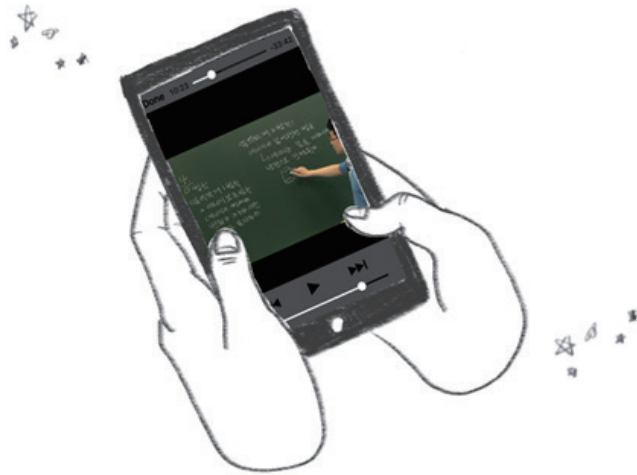


전국 대학의 학술자원을 한곳에서 공유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http://www.riss.kr>

KOCW



모두를 위한 열린 강좌

대학공개강의서비스, KOCW



<http://www.kocw.net>



RISS & KOCW 우수활용사례집

발 행 | 2018년 11월 29일

발행인 | 한 석 수

발행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keris.or.kr

주 소 |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
(동내동 1119) KERIS 빌딩

전 화 | 053-714-0114

팩 스 | 053-714-0198